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5 1982년 2월2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February 2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교포이민 증대위해 1만서명 운동

—총연합회서 추진계획—

약 4~5만으로 추산되는 캐나다의 한인교포수를 늘이기 위한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몬트리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인총연합회(회장: 오기송)는 금년 4,5월경부터 각 지역에서 만명의 한인들 서명을 받아 캐나다 정부의 관계요로에 진정, 한국인의 이민수 증가에대한 특별배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기송회장은 19일"불경기 라고 하지만 통계에의하면 캐나다가 년간 받아들이는 이민수가 10만명은 되는 것으로 안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심사는 쿼터제가 아닌 점수제이므로 소정의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한인 교포들이 이곳의 취업현황등의 정보를 제공, 한국정부의 주도로 이민신청전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 으로 점수제도에 맞추면 캐나다정부로서도 거절을 할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의 목적은 교민들이 한인이민수를 늘리기 위해 이만큼 적극적이라는 성의를 보여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여론을일으키는 것이다고 밝힌 오회장은 지금까지 한국교민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 이민신청자가 점수제도가 요하는 점수만 따게 되면 캐나다정부로서도 인정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서명운동 으로 이민수 증가를 시도한 에트닉 그룹은 아직까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송회장은 일단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대로 오타와로 가 트루도 수상과 이민성장관등 관계 요인들과 특별면담을 가질 것도 구상중이다.

한국정부도 이미 대사관을 통해 적극협력을 화약해왔다는 오회장은 서명운동의 구체적 방안으로 ①특별위원회를 구성, 종 합대책 마련, ②기존 각지역 한인회 조직망 이용, ③교회, 단체등을 이용 소정양식에 각 교민의 서명을 받는다, ④각 교민지에 광고를 실어 우편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점등을 밝혔다.

연합회는 서명운동이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교민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원증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합회에 회원추천및 의견제출을 하려면,

The Federation of All Korean Associations in Canada
5525 Silverson Ave, Montreal P.Q. H4V 2G6
CANADA
전화(514) 489－8753로 연락하도록.

원영신 회장 재선

동우회 내실위해 외부행사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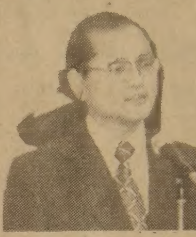
토론토의 친목단체중에 큰 단체로 근 250여명의 회원및 회원가족까지 합치면 1,000여명의 식구를 거느리는 서독출신들의 단체 동우회의 제5대회장으로 원영신씨가 재선됐다.

지난 20일밤 한인회관에서 열린 82년도 동우회 총회는 한시간여를 기다린끝에 8시30분쯤 50명의 정족수가 채워져 회의가 시작됐다.

"10여회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했으나 회장에 출마하려는 회원이 한명도없었다"는 동우회 간부들의 말대로 입후보자가 없어회원들은 원영신 회장을 재선출시켜 억지로 회장직을 떠맡겼다.

교민단체중 가장 재정이 튼튼하고 단결력이 강한것으로 알려진 동우회도 불경기탓인지 원영신 회장이 81년도 사업목표로 내세운 2만5천달러 기금 목표액의 약 10분의 1인 2천여 달러밖에 모금되지 않았다.

외부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자는 원회장의 말대로 동우회는 금년도에는 외부행사주관을 지양하고 여름철 야유회와 연말 파티 두가지 행사만을 치르 기로 결의했다.


◇원영신 회장

◇웨인 그레츠키가 NHL기록 76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순간. 그의팀은 디트로이트를 7:3으로 눌렀다.

그레츠키 76번째골 성공

계속 신기록 수립할듯

(디트로이트)「무서운 아이」「신동」으로 불리우는웨인 그레츠키가 드디어 금년시즌의 76번째 골을 기록, 신기록의 가두를 달리게 됐다.

NHL 시즌당기록은 지금부터 11년전 보스톤의 필·에스포지토가 세운 76골이었다. 그레츠키는 이번 시즌에 아직 17 게임을 남겨 앞으로 그가 기록하는 골마다 신기록이 된다.

그레츠키의 신기록을 보기 위해 모인 2만여 디트로이트 관중들은 자기팀레드윙즈보다 오히려 그레츠키가 속한 에드몬톤·오일러즈를 응원, "그레츠키, 그레츠키!" 외쳐댔다.

그레츠키는 제2피리어드까지 4개의 어시스트만 을 기록, 정작 목표인 76번째 골은 기록치 못했었다. 제3피리어드 시작 16분34초경 골근처에 서있던 그레츠키는 앤더슨의 패스를받아 골리 사브의 발밑으로 사뿐히 밀어넣어 드디어76골을 기록, NHL기록과 타이를 이루었다.

이순간 모든 관중들은일제히 일어서서 5분여 동안 그레츠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타이기록을 세운후 그레츠키는 박수를 보냈던 관중들에 감사의 인사를했다.

한편 76골 기록보유자인 필·에스포지토는 "하키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다"라며 그레츠키에 축하의말을 잊지 않았다.

그레츠키의 신기록 페이스는 24일 버팔로에서 계속된다.

한편 종합순위에서 1위팀인 그레츠키의 오일러즈를 바짝 뒤쫓고 있는 뉴욕아일랜더즈는 피츠버그·펭귄에 4:3으로 져 NHL 연승기록을 15연승에서 그쳤다.

아일랜더즈는 20일 까지 15연승을 기록했었다.

社說 도도록 높은 탑

— 장학재단의 존재가치

학구열에 불타는 교포학생들중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남의모범이되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가려내어 해마다 장학금을 주어 북돋 고 있는 한인장학재단은 이땅 한인사회에서 제1급 봉사단체로 꼽히고 있다.

연조가 얇고, 동참자가많지않아 흐뭇할 만큼의 기금마련에 고충이 적지않으나, 그런대로 알찬 한인문화의 주춧돌을 깔면서 백년대계의 기초를 차곡차곡 다지고있는 이 장학재단은 교민전체의 아낌없는 박수에 해당되는 단체라 하겠으며, 해마다 장학의폭을넓혀가고, 장학금 액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부상(浮上)의 도를 높여가고 있음은 고무적 현상이라하겠다.

장학재단의 더듬어온 어제를 살펴보면, 78년 발족이래 3년동안 모국의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었고, 캐나다내 한인학생18명에게 학비를 대주는 업적을 남겼다.

그밖에도 수학경시대회 경비지원, 한글학교생 표창등 우리의 2세들을 따스히 도와주는 일에 힘써온 동재단은 현재 3만여 달러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적극 뒤미는 이사 3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항간에는 친목위주나 영리목적의 단체가 흔히 있으나, 장학재단은 그런 방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이 땅에 있어서의 동족문화향상과 지위향상, 복지건설을 위한 보다실찬 질적부자를 맡고있으니 방관이나 외면을 일삼지 말고, 범교민적으로 적극 이 장학사업에 동참하는 아량과 열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무대로삼고 돈 벌었으면 그중 반이상을 사회에 되돌려야할자동적이며 도의적 의무를부여받고 있다. 이것은 법적책임은 아니나 「로빈슨·크루소」가 아닌, 사회를사는 생활인의 당연한 자상명령인 것이다.

이땅 교포사회에도 중산층 갑부가 점차로 늘고있다. 흐뭇한 현상이 아닐수없다. 굵직굵직한 기업인도 날로늘고있다. 고무적소식이다.

이에 그들에게 권하거니와 장학재단같은 뜻있는 사업에 선의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밤낮 노고를 아끼지않고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는것은 저 혼자 잘살자는뜻이 아니고, 내 식구들과 더불어 부(富)의 혜택을 입고, 번영을 누리자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폭을 동족이라는 면에까지 넓혀 우리민족이라는 관점에서「우리가 다 잘살자」는데까지 확대시켜야 정녕 대인다운 인물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비로소「돈벌레」(Economic Animal)의 범주를 벗어나, 값다운 삶, 살아서 보람다운 인물로 스스로도 넘치는 내적 충족감을 맛볼 것이다.

◇

유구한 시간의 흐름 그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떠밀려가는것이 이승삶이라면, 한번 지나가면다시는 되돌아올수 없는 시간(현재삶)을 후회없는 것으로 충실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위한일, 공익사업에 신경을 쓰지않을수 없으니, 그것은 사람다운 오롯한 길이며, 보다 빛다운 장래를위한 금자탑의 벽돌을 한장한장 쌓아올리는 건설적 삶인 것이다.

어찌보면 사람의 참가치는 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寄与度)·) 남에대한 봉사심의 밀도로 평가된다하겠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것은 또한 복된 후세를위한 값진 투자의 한 단계로 간주 되기도 한다.

◇

한인장학재단은 장학기금 마련을위한 비상책의하나로 오는27일 기성연예인들을 출연시켜 [illegible] 쇼를연다.

노래·코메디·춤·밴드 의 흥미로운 공연과 만찬·댄스파티를 겸한 이 행사에 교포들은 더욱 관심과 호의로운 반응을 보여, 구경도하고, 저녁도들고, 춤도즐기면서 뜻있는 장학사업을 돕는데 너나 할것없이 동참(同参)해야 할것이다.

장학의밤에 대한 열기와 관심도가 그날 하루에 그치지 말고, 지속성 있게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염원하여 마지않는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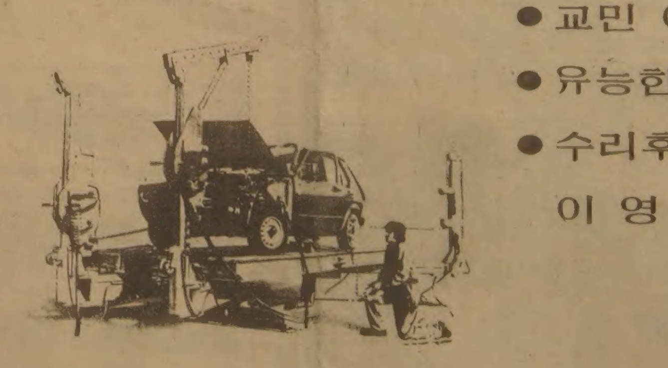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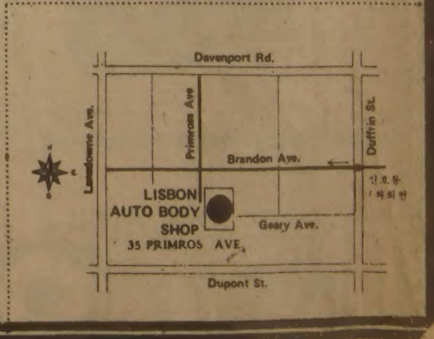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년미만 모기지성행

인프레 압력, 19.25% 까지

금리전망이 불투명 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장기형 모기지가 사라지고 1년이하의 단기모기지가 성행, 부동산구입이나 모기지 갱신에는 더욱 타격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모기지를 주는 돈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에서 2~4% 높이 모기지율을 책정, 돈을 빌려주었었으나 인플레이 션이 계속 심화되고 중앙은행의 금리도 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인플레이션율보다 4~6% 더높은 선으로 모기지율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보통 3년내지 5년까지는 주던 갱신기한도 1년내지 1년미만으로 줄이고 있다.

커머스뱅크(CIBC)는 지난 주 1년형 모기지율을 17.75%에서 18.25%로 올렸고, 3년형은 18.75% 에서 19.25%로 올렸다.

커머스은행의 벤·제스트런씨는 16일 캐나다주택·도시개발협회 전국총회 에서 싼 장기모기지를 구하기가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보여 은행이 3~5년 장기예금금리를 현재 17%에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은행등 금융기관이 돈을갖다 쓰는데는 17.5%의 이자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바·스코시아은행은 지난주 1년형 모기지를17.75%에서 18.25%로, 2년형을 18%에서 18.75%로, 3년형을 18.75%에서 19.25%로 올렸다.

한글II 제작착수

씨알학교 편집진 완료

한국인 교포2세들을 위한「한글교재 II」의 제작준비가 완료됐다.

토론토의「씨알한국인학교」가 주도하는 이 교재편찬 계획은 이미 81년 10월부터 착수, 제작, 편집진을 완료하고 지난 15일자로 연방정부 보조금의 반액인 9천달러를 받았다. 교재편찬의 진전도에 따라 나머지 9천달러도 받게될 것이라고 씨알학교 유회자교장은 전했다.

이석현, 이길자, 김숙희, 정향조, 유회자씨의 5명저자및 편집인, 5명의 삽화가와 뱅쿠버의 김태환 박사, 위니펙의 김원겸 박사, 한국교육연구원의 고재혁 원장등을 편집진에 포함시킨 동교재 편수반은 범캐나다적 한글교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한글교재 편찬에는 한국정부에도 $6천의 보조금을 신청중이다.

동 교재편찬을 주도하는 유교장은 한글학의원로 박창해 박사와 배웅진씨의자문을 받고 토론토교육국의 죠뮤토씨, 온타리오교육위원회의 르베카씨등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글교육자 대회

5월초 위니펙서

캐나다 한인총연합회 는 위니펙 한인회와 공동주최로 5월초 위니펙에서 한글학교교육자대회를 갖는다.

연합회 오기송회장은 19일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연방정부의 복합문화성으로부터 경비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한글학교교육자대회에캐나다 각지의 한글교육기관에서 2,3명씩의 대표가 참석, 세미나를 갖는외에 한국정부를 대표한 이규현대사와 주정부 대표도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자율, 미국에 위협

우방들, "경제침체는 미국탓"

(워싱턴)"고이자율은 미국경제회복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칭한 미대통령 레이건은 멀지 않아 이자율이 10%미만으로 되돌아갈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일 레이건은정확한 이자율 인하시기에대해 언급을 회피하며 다만 최근의 경기후퇴는 극에달해, 금년 어느때고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과 그의 경제자문관들은 작년 그들이 집권할 당시 약속했던 경제회복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계속되는 고이자율을 들었다. 캐나다를 포함한 미우방국들도 자국의 경제침체가 미국의 고이자율에 기인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레이건의 발언과 때를 맞춰 미국내 대부분 주요은행들의 우대금 리가 16.5%에서 17%로 올라, 미금융계가 레이건 경제정책에 계속 회의를 갖고 있음을 암시했다.

레이건의 83년도 예산은 심지어 그의 출신당인 공화당원들에게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들은 82년에 $980억, 83년에 $915억로 예상되는 적자가 미국경제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어떠한 기회도말살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같은 경제후퇴의 우려를 부인하며, 의회가 그들이 요청한 예산을 수락만 한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있다고 장담했다.

레이건은 또 이자율조정을 위해 미연방 중앙은행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나중앙은행도 레이건행정부 예산적자에 비판적이다.

사형제도 철폐운동

엠네스티, 미국서 대대적

(런던)국제적 인권기구인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사형제도 자체를 철폐키위해 대대적 여론조성운동을 펼칠 것이라고16일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둔 엠네스티는 미국행정 당국자들에게 사형제도를 철폐,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1,000여명의 사형수들의 생명을 구제토록 건의하고 있다.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수많은 조사결과 사형제도는 불공평하게 적용되어왔다고 엠네스티는 주장했다.

76년 연방대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유예가 해제된 후 매주 4명이 사형선고를 받으나 정작 사형집행은 오직 4명뿐으로 사실상 사형제도는 유명무실해 졌다.

엠네스티는 100개국 이상의 지부회원들에게 사형제도반대에 대중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미국과 그밖의 28개국에 청원서를 내라고 호소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

미회사와 제휴로

(서울 19일=연합) 한국정부는 미국 공업회사「베취텔」과의 기술제휴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회사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이정오과학기술부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장관은 이 계획의 골자는 장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80%까지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라고말했다.

놀웨이 自由言論賞 軟禁中인 바웬사에

(오슬로, 놀웨이-UPI) 연금상태에있는 폴랜드 자유노조(솔리대리티)지도자 베크·바웬사가 11일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놀웨이의 자유언론상을 받았다. 상금은 1만8천달러.

바웬사는 금년도 노벨평화상후보로도 지명된바 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간장은 禁物…즉시 冷水로 씻어 細菌 감염 막아야

火傷의 응급처치

모든 외상이 그러하듯 화상 역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못한다거나 해서 시기를 놓쳐버리게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데를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속담이 적중하게된다。화상직후 침착하게 화상부위에 대한 냉수처치를 잘하게되면 화상의 범위나 정도를 가볍게할 은 물론화상의 치유기간도 훨씬 단축시켜 화상치유후에 발생되는 흉터도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수있다。냉수처치란 화상을 입은 바로직후 수도물이나 냉수에 화상부위를 10여분간 담그는것을말한다。이렇게 함으로써 화상부위의 피부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더이상 피부조직손상을 입지않게하고또 화상직후 발생되는 심한 통증이나 조직의 부종을 어느정도 경감시킬 수있게된다。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균의 감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화상을 입고 난후 간장이나 된장을 바르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것같다。이러한 처치법은 화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화상하면 불이나 불에 덴것만을 생각하기쉽다。그러나 최근 생활수단이 복잡해 짐에따라 화상의 원인과 양상도 전보다 무척 다양화해 가고있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건열, 습열, 전기, 방사선, 화공약품등에 의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있다。이 중 전기나 방사선에 의해 화상이 발생된 경우엔 집에서 응급처치가 거의 불가능하다。이땐 신속히 전문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해야한다。전기화상은 겉에 나타난상처보다는 신경이나 혈관을 통해서 깊고 심한 조직손상이 있을수 있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화공약품을 가까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를 화공약품으로인한 화상도 흔히 찾아볼수 있게되었다。화공약품으로 입은 화상은 우선 깨끗한 물로 여러번 씻어 화공약품을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다음 산성 화학물질이라면 비눗물(알칼리성)로 다시한번 상처를 깨끗이 씻어낸다。화공약품으로 화상을 입게되면 치유가 된 후에 흉터가 보기 흉하게 남는 일이많다。건열이나 습열에 의한 화상은 화상을 입은 직후 냉수요법이 유효하다。냉수요법은 빠르면빠를수록좋다。화상부위에 기름이나 바셀린을 발라주는 일은 무방하다。

咸 基 善

【醫博·가톨릭의대성형외과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 「문위」5종과 같은것 발견

우표수집가 교포 변덕인씨 소장

(LA지사)미국우표수집가인 교포 변덕인씨가 소장하고 있는 희귀성우표중 우리나라 최초우표인 문위우표5종과 동형의 우표5종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변씨는 1884년 발행된우리나라 최초우표인 우정국소관우표와 비슷한 우표5종을 발견해 각종 문헌을 조사했으나 현재 한국우표연감과 미국우정성 만국우표연감에도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한다.

우리나라 최초우표는 1884년(고종21년) 일본에서 인쇄한 후 그해 12월4일우정국개설과 동시 사용됐으나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다.

그후 우편사업은 10년후인 1895년 통신국이 설치된후 미국에서 우표를 다시 인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문헌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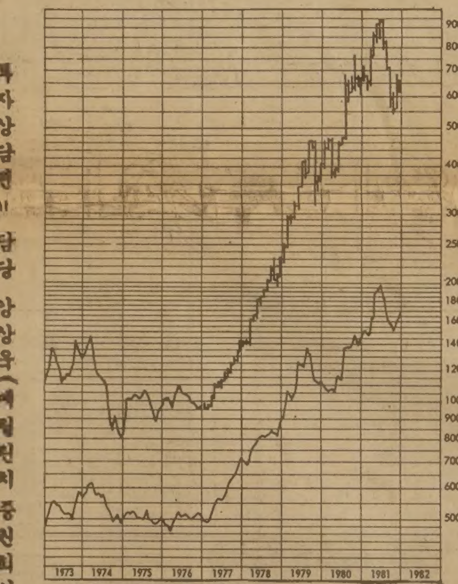
주간女性

◇새로 발견된 우표(위)는 1884년 최초우표(아래) 와는 인쇄가 정교치 않은 것 이외는 동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생활과 우리

투자상담편 = 담당 강상우(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부동산및 건설회사 주식변동



도표는 토론토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및 건설회사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77년부터 81년까지 평균 9배가 올랐다.

부동산 주식이 폭등한근본적 이유는 2차대전이 끝난 1948년부터 1950년사이에 있었던 출산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년기인최근에와서 주택부족현상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계속 떨어진 것이있다면 출산을 하나밖에 없다고 할정도로 전쟁직후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으며 이는 오늘날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재미있는 현상은 전후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한것을 볼수있다.

유아용품을 만드는 Johnson&Johnson, 장난감제조회사 Tonka같은 회사들어 출산붐과 같이 후에, 이들이 학령기가 되는 시기에 Mcgraw Hill같은 출판사가, 자동차를 타야 하는 시기에 자동차산업이 번창했다.

그들이 가정을 꾸며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1977년경부터는 부동산붐이 일기 시작했다. 건설회사 주식이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은 지난호에서 본 금광산주식이 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것과 같은 원리이다.

부동산값이 올라 간다고 볼 때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집을 살만큼 충분한 돈이 저축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고 또 주식의 처분을 원할 때는 즉시 할 수 있는 주식투자가 좋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있다."토론토의 많은 교포들이 소매상을 하여 어느 정도 돈도 벌었지만 가게보다 한단계 차원높은 사업을 한다."

전문경영을 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캐나다인에게도 역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현대의 기업은 자본과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일반대중도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구입, 자본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주식회사의 보편화

베비·붐 영향 부동산에 미쳐

산업의 전망이 아주 좋다면, 직접 회사설립을 할수도 있지만 이민자들에게는 주식구매를 통한 자본의참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얼마전 25세의 캐나다인 처녀에게 주식을 팔면서만약 한국처녀에게 주식을사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 북미주의 증권시장이 한국보다는 제도나 운영면에서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투자대상도 훨씬 다양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정주부들에게 까지도 널리 보급되어 있는 증권투자가 캐나다 에서는 크게 보급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곳 사람들은 일단 여유 돈이 생기면 증권투자를 고려해 본다. 이는 증권시장의 오랜 역사에도 기인하겠지만 이 사회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변화가 없으므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크게 승부를 볼 수 없다는 생각때문일런지도 모른다.

과거 5년간 캐나다의 광산, 오일, 부동산 주식들이 모두 평균 10배씩 올랐으며 특수한 주식들은 50배씩도 올랐지만 증권에대한 투자라 하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돈을 벌기는 커녕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호에서는 증권 투자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수 있는가를 알아 보겠다.

(계 속)

본란 의문점은 Merrill Lynch Mr. 강에게….
☎361-3428, 3429.

개인 최고기록

▲망아지 처럼 아름다운 몸매로 크리스는 최선을 다해 달린다.

새映画

달리기 통해 人間의 忍苦·희열 추구

「Personal Best」는 지난해의 「Chariots of Fire」에 이어 육체의 잠재된 미가 불꽃터지는 달리기를 통해 최선을 향한 인간의 인고와 노력과 희열을 힘껏 추구하고있다.

76년 오레곤주 유진의 올림픽트랙·필드선수 선발전, 크리스(매리엘·헤밍웨이)와 토리(패트리스·도넬리)는 이 선발전서 만나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그리고 경쟁자로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된다. 크리스를 사랑하는 토리는 무자비한 훈련을 시키는 코치 테리(스캇·글렌)에게 크리스를 추천, 팀에 합류시킨다. 이로부터 4년간 둘은 사랑과 갈등과 경쟁을 나눠가며 최선에 대한 집념을 태우면서 마침내 화사한 승리의 맛을 만끽하는데.

망아지같이 싱싱한 헤밍웨이와 올림픽선수였던 도넬리의 연기가 훌륭한 이 작품은 5종경기중 달리기를 부각시켜 육체의 육감적인 미와 높은것을 찾는 선한 욕망의 미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각본과 제작을 겸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한 로버트·타운은 강렬한 달리기와 함께 크리스와 토리가 연인과 벗과 경쟁자로서 넘겨야할 환희와 고뇌의 과정을 밀도있게 연출하고있으나 그 과정이 철학적이기까지해 영화의 강렬성에 맥을 끊는듯한 감이있다.

경기장 모래바닥에 스며드는 땀방울과 클로스업된 헤밍웨이의 코와 턱끝에서 떨어지는 땀방울로 시작되는 마이클·채프먼의 촬영이 눈부신데 포환을 던지는 선수들의 동작과 마지막 8백m달리기등의 슬로모션기법은 그림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거칠지 않은 쇠같은 아름다운 몸을 지닌 도넬리의 신중한 연기가 뛰어난데 타운감독은 도넬리와 헤밍웨이의 동성연애를 외설스럽지 않은 인간이 가질수있는 진지한 관계로 처리했다.

타운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 도넬리등 실제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으며 헤밍웨이에게도 1년간의 강훈을 시켰다고 한다.

워너사 배급, 등급R.

Sansui

"산수이" 전축 대매출

전축 구입에 최고기회!

Sansui

150 WATTS POWER
REG. ~~$1829.00~~
SPEC. $1295.00

110 WATTS POWER
REG. ~~$1650.00~~
SPEC. $1149.00

130 WATTS POWER
SPEC. $1990.00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WESTON HWY401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Kingston Rd. Lawrence Ave. E.
282-2820

<수상>

눈오는 날에 한국인을 생각한다 ②

김 삼 우(선련사 주지)

나는 나를 감동시킨 다른 두사람의 거지를 만난적이 있다. 그러나 번거로와 여기적지 않는다. 자기자신과 무심히 하나가되어 내 마음 깊은곳을 울리어 눈물을 자아내게한 일이 어찌 이뿐이랴. 북미에 와서 나는 인디언 원주민들과흑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아왔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백인들로부터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이다. 우리도 중국사람, 일본사람, 그리고 어떤점에서는 미국사람들로부터도 경험한 일이지만 침략자나 독재자의 횡포, 인종차별및 사회적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독선과 불관용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없이 남의눈치를 보며 움츠리고 살아가야 한다는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미는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 쓸데없는 피해의식과 열등감, 여기서 받는 괴로움과 분노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편견과열등의식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분들이 적지않다.

말할것도없이 우리는 이러한 독선, 편견및 불평등을 조성하는 사회적 요인을발견,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마침내 인간 자신에게로돌아가서 찾지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도 인간은 이것을 자기안에서 극복할수 있는데서 우리는 인간정신의 위대함을 볼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결국「마음」의 문제인것이다.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자기를 마음대로 나타낼수가 없다. 그래서 비굴하게, 아니면 울분가운데서 살아가는분들이 많다. 아무런 자기의 잘못도 없으면서 사회적인 불균형과 성숙하지 못한 인사들의 우월감과잔인함의 희생이되어 위축된 삶을 영위하고있는 이런천대받는 사람들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이런 고통받는 사람들 가 운데서 모든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스스로 이겨내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는 촛불처럼 밝고 환한 사람들을 만나볼때가 있다. 이분들이 처한 환경과이분들이 받는 수모가 크기때문에 이분들이 내는빛은더욱밝지 않을수가 없다. 그것은 겨울이와야 소나무의 푸름을 알고, 밤이 깊어야 촛불의 밝음을 알수있는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이분들이 이름을 날리고,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없이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자기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보는데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다. 인디언 원주민들의 그 구김살없는 토속적인 표정과 미소, 흑인들의 호방한 웃음소리와 방탕스런 몸짓에서 자기자신과 하나가 되어 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나는 느낄 수 있다. 그들은 그 무심한 정직한 작용을 통해서 생활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분들과 만남으로써 순수한 마음의 감동을 얻고, 이러한 감동은 젖지 않는 물소리처럼 내 마음의 빈 곳을 울리어 눈물을 자아내게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자기를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를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을때 사람은 가장 자기다와 진다. 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한국사람, 가장 자기다운 한국사람, 아름답고 행복한 한국사람을 보고싶을 때가 있다. 한국이라는 의식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할머니의 잔잔한 주름살속에서, 부채를 부치며 시원함을 즐기는 아주머니의환한 웃음 속에서, 진달래꽃을 꺾어 매단 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 가는 시골머슴의 뒷모습에서, 장죽을 피워 물고 먼산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달구지를 타고 학교에 가는 어린애들에게서, 호롱에 불을 붙이는 할머니의 여윈 손길에서, 버드나무가서있는 한길가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버린 시골아저씨의 소탈함에서, 걸망을 지고 구름처럼 산길을 걸어가는 행각승의 구도정신에서, 물동이를 이고 흙돌담을 따라 걸어가는 시골처녀의 가련한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의식조차 배제된 가운데서 뜻밖에 한국과 한국사람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기자신을 잊어버린 생활 가운데서 핀 한떨기의 꽃과 같이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계 속)

한국일보
533-2361

◆우리 아기 보세요—패트리샤·허스트와 남편 버나·쇼가 이제 1살된 딸과 함께 레이디스·홈·저널지를 위해 포즈를 취했다. 뒤는 엄마전 신문왕 랜돌프·허스트와 이혼한 어머니 캐서린·허스트. 캐서린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40년 결혼생활을 끝낸것이라고 말하기도.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33)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번역

그러나 이노사건이 있었던 때와는 달리 오호토는 그전날 저녁에 어째서 자살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용서해 주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권리를 느꼈다.

며칠후에 나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여기에 계속해서 오호토가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본다.

내가 아직(누타릭)(어린아이)였을때 나의 부친은 자주 리버·오브·맨을 여행했지요. 내 부친 「엘라이 투트나」는 「히롤리콰」이라고 부르는 강까지 모험을 무릅쓰고 내려갔는데 그는 앙쿠니·캠프에 참변이 있기전 그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분은 별로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샤만이었기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귀신들을 덜 무서워했고 그 강뚝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도 몇년동안 계속해서 거기를 찾아 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멸한 후 앙쿠니를 찾아 본 사람은 우리 부친뿐이었어요.

그는 이 큰호수를 매우 좋아했고 그의 이 땅에 대한 애착은 빈 텐트 자리와 그 지역을 메운 무덤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지요. 엘라이투트나는수차례에 걸쳐 어린 시절에 사슴을 처음 본 때를 잊을 수 없는 앙쿠니로 돌아 가겠다고 맹서했답니다.

여기서부터 멀리 동쪽에 위치한 무역자가 살고있는 호숫가의 내 천막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의 무덤에 함께 묻어줄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서키네투아 언덕밑에 있는 캠프로 돌아왔었읍니다.

우리가 처음 키네투아산을 올라가서 그 호숫가의 황무지를 내려다보면서 엘라이투트나에 관해서 이야기 한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산을 잘 알고 있지요. 또 그 근방도 잘알고 있답니다. 그곤방의 어디엔가 엘라이 투트나의 넋이 떠돌아 다닌다는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생각은 내가 그의넋을 좋아하지 않지만 엘라이투트나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않고 나를 행복하게만 들어 주었답니다.

우리가 키네투아만에 캠프를 치고 몇일되지 않아서 나는 엘라이 투트나의 넋이 나를 찾아온것을 알았읍니다. 나는 그를 보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가 거기에와 있는것을 의식했고 내가 그 죽음의 땅을 걸을때 그의 존재는 나에게 두려움과위안을 주었읍니다.

우리가 앙쿠니를 떠나쿠위강을 따라 올라왔을때엘라이투트나는 내곁에 있었고 우리가 그무덤들로부터 멀어지면서 그의넋은 마침내 귀에익은 그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수 있을만 큼 강해지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들 이름도없는 호숫가에 올라왔을때 엘라이 투트나는 한없이 계속 펼쳐있는 빈황무지에서 돌아가라고 속삭여 주었읍니다.

당신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계속해서 낯선강으로올라왔기 때문에 엘라이투트나는 그곳이 자기가속한땅이 아니므로 그의힘을 잃어버렸지요. 그는 그귀신이 강을 따라와서 내 얼굴에 종기를 일으키며 나를 죽이려고 괴롭혔지만 나를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당신의 재주로 나를 구해주었읍니다 아직도 당신들은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번에 그의 넓은 강한 소리로 말을 했고 나는 그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하루종일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장시간 동안 그의 어린시절과 어린시절의 그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엘레이투트나는 사람이 살고 있던 텐트가 구름처럼 많던 시절 어느날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 가던 일 따위를 이야기했지요. 내 부친은 사슴이 그렇게 많던 시절에는 굶주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말했읍니다. 그는 동네사람들이 카약을 모두 갖고 나와 큰떼를 지어 아킬링네 아라고 불리는 교합장소까지 긴 여행을 했던 이야기도 들려 주었는데 이 높은 산등성이에서 해안선에 살던 이누이트가 우리의 경계선까지 와서 나무를 얻어가고 여러가지 문물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내 부친의 추억은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이할미우트가 서쪽으로 50일동안 행진을 해서 우리는 한번도 보지 못한 큰 호수까지 갔다온 이야기도 했읍니다.

엘라이투트나는 일킬리트가 남쪽과 서쪽으로부터 어떻게 쳐들어 왔으며 그 쪽에 살고 있던 이누이트를 어떻게 죽였는지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도망을 쳤고 몇 세대를 두고 사람들은 일킬리트의습격을 피해서 천천히 동진, 현재의 이할미우트땅을 발견한 이야기들을 쉴사이없이 해주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엘라이투트나의 이야기는 사슴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부친이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우리가 타고온 카누에서 사방을 돌러보았으나 이땅에는 살아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약해지고 어지러워져서 이미 내가 죽어 있는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고, 우리는 이미 사슴이 없는 곳에 들어와서 굶주린 귀신이되어 황무지를 헤매며 없는 사슴을 찾고 있는중이라고 착각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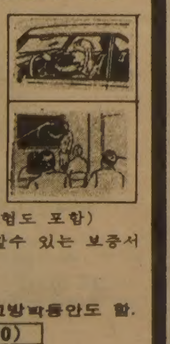
나는 엘라이투트나의 목소리가 계속 힘있게 들렸는데 이 캠프까지 와서 나는 내 부친을 한번 더 보았지만 그게 마지막 이었어요.

(계 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학녀,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어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매밀꽃필 무렵등….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복소대작전, 진화감 천칭.
쇼－억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강철새로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팔도대항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항전,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알뜰가족등 10여편
기타－인간가족, 사랑의 재점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추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출천진
어린이용－우주 대사전, 꿈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엄의 코스, 정이의 세계여행, 하이빔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알개시대, 호랑이 선생, 아징가, 임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다러지마고, 레미제라블, 죽음의 코스, 철없는 아이, 석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쿼시잇,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복키, 벤·후라워, 7인의 신부, 바람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리튼·다릭스, 선화산인, 우리작전, 베르린 위기탈출, 나이, 워터루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善美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공무원 精勤수당 俸給化

總務處 업무보고 1~5級 2만5백명 管理者교육

非違발생때 連帶책임 強化

任用前 士兵경력 在職인정

총무처는 올해를 「제2단계행정改革의 해」로 정하고 정부역할의 再定立사업을 力點시책으로 추진하고 공무원교육훈련발전5개년계획을 세워 86년까지 1급~5급공무원 2만5백명에게 관리자교육을 실시키로했다。총무처가 17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리자양성교육과정을 신설, 교육을 받은사람을 우선 승진시키는「先敎育 後昇進制」를 채택하고 86년까지 56만1천명의 공무원에게 理念교육을 실시, 公職者윤리관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公職不適格者의 지속적인 淨化를위해 중간관리등에 중점을 두어▲직종별청렴도평가를 강화하고▲無能·不誠實者를 도태시키며▲非違관련퇴직자의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비위발생에 대한 連帶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한 人事운영을위해 총무처는 3級이상으로의 승진심사를 맡을 중앙승진審議委를 설치하고 4급까지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의위를 각部處에 설치키로 했다。

총무처는 특히 현재 정부산하단체에 한정시켜 실시중인 공무원파견근무제의 파견대상기관을 국제기구와관련민간단체에 까지 확대하는한편 파견대상도 확대, 5급이상(현행4급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4급이상 일반직 3천6백개職位에 대해 職務分析등을 조사, 각각의 직위에 따른 자격요건을 정하는 직위분석작업을 추진하고 文書관계法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수있게 文書기본법 제정을 검토할방침이다。

정부청사를 넓히기위해 총무처는 原州시내에 18억원의 예산으로 시범합동청사를 건립, 原州지방 국토관리청등 6개기관을 수용키로 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연2회지급하는 精勤手當을 俸給化하고 현재 6급에게만 지급하고있는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을 7급이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生計費안에의한 부조리 예방책의하나로 올해 1백20억원의 예산으로 1천6백명에대한 獨身者宿所를건립, 사용케 하기로했다。

또 공무원이되기전의 士兵복무경력을 공무원在職기간으로 인정하고있는 軍入隊휴직기간을 완전히인정, 年金法상 38만명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금법을 개정할방침이다。

이밖에 공직자의식구조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올해안에 공무원意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총무처는 이밖에 官用차량定數 1만7천9백19대(승용차 7천91대)가운데 승용차량 1천5백대를 감축키로하고 금년에 40%인 6백대, 내년에 60%인 9백대를 각각 줄이기로한한편 自家운전지원을위해 차량구입시 3백만원을 융자해주고 월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했다。

◇全斗煥대통령이 金容烋총무처장관(서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책임지는 公務員像확립을"

全대통령 指示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상오 청와대에서 金容烋 총무처장관과 관계국장 5명으로부터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봉사와 책임지는 공무원像을 확립하고 행정의간소화와 과학화로 경비지출을 극소화해 행정의 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공무원年金운영의 효율성을높여 在職중인 공무원들과 퇴직한 공무원들의 厚生향상을 기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총무처보고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와 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 배석했다。

美上院의원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마크·해트필드 美上院의원을 접견하고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외무차관과 클리브랜드 駐韓美대리대사가 배석했다。

公務員 올 3만7천명 募集

작년보다 1萬1千여명 줄어

정부는 82년도 공무원充員계획을 17일 확정, 지난해보다 1만1천8백87명이 줄어든 3만7천1백30명을 채용키로했다。

총무처가 이날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획에 의하면▲일반공무원1만6천1백86명▲교육공무원1만4천4백5명▲경찰공무원5천2백64명▲소방공무원1천2백75명을 각각 充員대상인원으로 정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初·中等교원1만1천3백21명, 대학교원3천40명, 기타전문직44명을 채용하고 일반공무원은 국가공무원9천7백26명, 지방공무원 6천4백60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충원방침을▲공무원의 소수精銳化▲우수한전문인력의영입▲緣故地임용의 강화에 두기로했다。

美戰術空軍司 산하 전투기28臺도 참가

팀스피리트82

한미연합사는 17일 팀스피리트 82훈련에 미전술공군사령부(TAC) 산하의 각종 전투기 29대와 8백명의병력이 참가하게된다고발표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할 부대는▲루이지애나주 잉글랜드기지의 A10기 12대▲플로리다주 험버트기지의 EC130기 3대▲및 0 허큘리스 수송기 AC130 무장헬기 2대▲펜실베이니아주의 헬리스버그 항공부대소속 EC130수송기 4대▲네바다주 항공부대소속 RF4C팬텀2 전폭기 8대▲애리조나주 데이비드 몬탄 공군기지의 제836보안헌병대소속 헌병등이다。

한편 한미연합사는 이날 하와이주둔 美보병25사단의 선발대 73명이 5H58헬기등 장비와 함께 오는 21일 아침 烏山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記者會見 오늘 TV中繼로

【워싱턴16日UPI=聯合】 레이건美 대통령은 18일하오2시(한국시간 19일새벽4시) 백악관에서 취임후 8번째의 TV중계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16일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공식기자회견을 가진바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美, A10機 18臺 한국配置

3月부터…空軍兵力 千2백명도

【워싱턴16日=曺淳煥특파원】 美공군은 A10전폭기 1개비행대 18대와 이에부속될 1천2백명의 공군병력을 오는 3월초부터 주한美공군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오는 가을까지는 배치를 모두 끝내게 될 것이라고 美국방성의 갤러거대변인이 16일 말했다。

저공비행에 능하면서 적의 탱크파괴와 지상병력공격에 특출한 효율성을갖고있는 이 A10기 18대는 모두○○공군기지에 배치되며 금년하반기나 명년초반에는 약24대의A10기가 주한 美공군에 추가배치될것이라고 갤러거대변인은 밝혔다。

1천2백명의 미공군병력은 A10기배치에따른 증원병력으로 주로 정비요원및 승무원들이며 그밖에 행정요원들이라고 이대변인은 말했다。

현재 주한미공군에는 A10기한두대가 훈련용으로 배치돼있을뿐인데 이번 1개비행대의한국배치는 주한미군현대화계획의일환으로 보여진다。

파리서 連鎖爆發

건물 다소부서져

【파리17日AFP=聯合】 17일상오1시 조금지나 파리의 수개지역에서 폭발사고가 동시에 발생, 희생자는 없었으나 건물이 가볍게 부서졌다。

폭발사고가 있은지 수분후에 AFP통신사에 전화를건 한 익명의 괴한은『코르시카해방전선이 폭탄을 매설했다』고 말했다。

"原油價 수개월내 大幅내린다"

OPEC供給과잉 2~5弗線예상

美 專門家分析

【뉴욕17日UPI=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적인 원유공급과잉때문에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수달러씩 인하하지 않을수없을것이라고 뉴욕의한분석가가17일밝혔다。

딘·위터·레이놀즈社의국제석유 분석가인 앨·실버씨는 OPEC가 작년 11월 35달러에서 34달러로 2달러인하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이에 따라 나타난 시장효과는 석유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2백만~3백만배럴로 추산되는 석유공급과잉이 세계적인 경기후퇴와대규모석유회사들의 저장량감축을 반영한것이라 분석하고 중질유의경우 수요약화로 4~5달러의 가격인하가 가능할것이며 중질유의 이러한가격인하는 OPEC의 유가책정기준이되는 사우디 아라비아산경질유와 커다란 가격폭을 나타내게돼 경질유의 2~3달러 인하가 필요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OPEC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가 산유량을 감축하지 않는 경우에도 1~3개월이내에 또 한차례의 유가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OPEC의장인 마나·사이드·알·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석유상은 석유기본가격인하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는 5월20일 에콰도르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각료회의에 앞서 석유공급과잉해소방안으로서의 산유량감축문제를 논의하기위한 OPEC 긴급각료회의의 개최를 촉구했다。

經協규모 集中협의

오늘 東京서 韓·日 2차實務회담

【東京=宋孝彬특파원】 經協타결과 韓日外相회담의 조속한 개최를위한 양국고위책임자간의 제2차 예비회담이 18일상오 東京의 日本외무성에서 열린다。

이틀동안 계속될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孔魯明외무부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하는 9명의 대표가, 日側에서는 기우찌(木內昭胤)외무성 아시아局長을 수석대표로하는 13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 지난달 서울의 1차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11개 프로젝트별 內譯을 토대로 이에관한 구체적 자금소요규모와 額數算定을 집중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3~4월중 개최될 예정으로 전망되는 外相회담의 구체적日程과 議題, 그리고양국간최대懸案인 經協의總額규모에 관해협의하게될것으로 보인다。

양측대표단은 개막첫날인 18일 상오와 오후에 걸친 2차례 회담과 19일상오 또한차례의 회담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질예정이다。

한편 한국측대표단일행은 17일하오 東京에 도착했으며 2차예비회담에앞서 이날하오 日側실무진과 구체적인議題와 토의방식을 협의했다。

한국대표단은 이번회담과 별도로 사꾸라우찌外相(19일), 스노베(須之部量三)외무성 사무차관(18일), 야나기야(柳谷謙介)외무성審議官(〃)을 각각 예방할예정이다。

日側대표단명단은 다음과 같다。

▲首席대표=기우찌外務省아시아局長 ▲外務省대표=야나기(柳建一)외무성經協局長, 니시무라(西村元彥)駐韓참사관등 6명 ▲大藏省대표=오오바(大場智滿)국제금융局次長등 2명 ▲通產省대표=우가(宇賀道郞)經協部長등 3명 ▲經企廳대표=이까와(井三博)調整局長등 2명。

엘살바도르 事態에 브란트, 美개입警告

【본16日UPI=聯合】 빌리·브란트 前西獨수상은 16일 미국에 대해 엘살바도르사태에 군사개입하지말도록 경고했다。

브란트前수상은 외신기자들과의 오찬연설에서 자신은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무력개입할것으로는 보지않으나 만약 개입한다면 불행한일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독社民黨총재이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장이기도 한 브란트씨는 미국의 엘살바도르무력개입이『서방세계의 아프가니스탄사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改良 호크미사일 美, 對韓販賣 계획

【워싱턴16日UPI=聯合】 레이건美행정부는 북괴공군 전투기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개량될 호크유도미사일 1백70基와 7백23基의 로키트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美국방성이 16일 발표했다。

국방성은 총6천8백만달러어치에 달하는 對韓 호크미사일판매계획을 이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美국방성은 이 미사일이 한국에 판매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재 2대1인 北傀전투기의 수적 우세를 상쇄시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政治活動규제 解除 論議할 時機아니다"

權民正총장 "근거없는 소문"

【全州=李在武기자】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은 17일 정치활동 被규제자의 解禁문제에 관해『현재로서는 정치활동 被규제자의 解禁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黨員교육을 점검하기 위해 이곳에 온 權총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에게 제5공화국出帆 1주년을맞아 일부 被규제자들이 解禁될것이라는 풍문에대해『제5공화국出帆 1년을 맞아 和合을 잘이루어나가고 있다』면서『정치활동규제자 解禁說은 근거없는 낭설이며 논의할시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한 낭설은 그러한 조치를 바라는쪽에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하고『현단계는 解禁문제를 논의할 시기가되지 못한다는것이 黨論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對政府 대표질문 民正, 羅碩昊의원

民正黨은 오는26일 열리는 제110회 임시국회 본회의의 對정부질문에서 대표질문자로 羅碩昊의원을 내세우기로 결정하고 各議題별질문자로▲정치·외교·안보=金重權 李慶淑 玄敬大▲경제=高貴男 李慈憲 康吉正▲사회=趙南照 沈相宇 洪鍾旭의원을 선정했다。

民韓黨도 대표질문자로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을 내세우기로 했으며 국민당은 의제별질문자로▲정치·외교·안보=朴在旭▲경제=李泰模▲사회=魯且泰의원을 선정했다。

社会漫評

週期的 行事…

地平線

며칠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을때 TV시청자들은 지진소식 스파트뉴스가 화면자막으로 안나온것을 안타까와 했다。밤11시가 넘어 일어났기때문에 보도진이 손쓸사이가 없었겠지만 지진을모른채 잠든사람에게도 이럴때 긴급경보를 울려줄수는없을까, 생각해본다。▼외국에서는 대형지진이나 큰불이일어나 경보를 방송해야될경우 가정안에있는 TV스위치가 자동적으로들어와 災害정보나 긴급뉴스를 알리는장치가 개발돼있다。일본만해도 TV수상기에 조그만 어댑터를 붙이면 된다。원리는 이렇다。먼저 방송국에서내는 音聲信號가운데 사람귀에는 안들리는 주파수의 특수음성신호를 符號로 만들어 發信시킨다。TV수상기에 접속된 어댑터안의 IC回路가 이신호를 받아 소리를내면서 TV수상기에 전기를 넣어주는것이다。긴급뉴스가 끝나면 그다음엔 정지신호가 나와어댑터의 방송으로 스위치는 끊어지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도 컬러방송과 함께 TV수상기가 생활필수품처럼되었다。수상기만 수백만대를 넘는다。이 TV시청자가운데 55·6%가 TV의 가정생활에주는영향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49·9%는 요즘 TV프로가 1、2년전보다 볼것이 많아졌다고 여기는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표본조사결과 가정생활에 좋지못한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가진사람은 6·3%에 불과하다。지역별로는 서울사람이 8·5%, 연령별로는 40대(10·1%) 교육수준별로는 대졸(13·4%)가 이런 거부반응을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그이유는 자녀에의 나쁜영향, 가정의 시간낭비, 재미없다, 범죄를 다룬다, 시간이준다, 동등의 순이라한다。▼한마디로 TV는 문화를 편하기는 어려우나 TV없이는 못살게된 세상이다。앞에 소개한 警報시스팀같은것도 우리나라에도입하면 좋을것이고 電波吸收帶, 有線TV放送등도 검토해 봄직하다。서울에도 고층빌딩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웃건물의 TV영상이 이중、삼중 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電波吸收壁도 연구되고 있다한다。難視聽은 僻地에만있는것이 아니라 도시고층건물의 그늘에도 있다는 얘기다。일조권처럼 시민들의 시청권을보호하기위해 건물에 반영구적인 페라이트 타일을 붙이는 방법이 그대책의 하나라고한다。▼말썽많던 시청료의 납제도가 내달부터 없어지고 우리나라 TV도 우리생활에 더 밀접해지고 있다。이럴때 TV문화를 더 키우기위한 여러가지 방책이 구체화되어야 하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 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개조 또는 교환 매매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125 Yonge St.
(영×퀸)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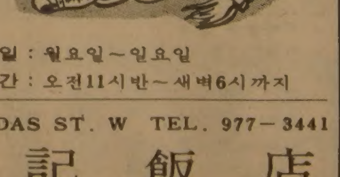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김인규회계사무소
개 업 안 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公採때 學生생활기록 反映

人事교류·派遣근무를 확대

공무원 賃貸아파트 千9百戶 건립

총무처 業務보고 내용

총무처가 17일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行政管理] 정부여한의 재정립작업을 계속추진, 23개의 주요과제와 1백25개의 일반과제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公益법인의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각종자료의 통합방안 ▲登記 제로베이스에 와 地籍簿의 통합방안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입각한 예산편성작업과 병행, 실시하고 각部處의 내용연람까지 찾아 내기로 했다. 부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재조정작업은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한다.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위해 行政便覽을 발간하고 비슷한 業務를 통폐합, 현재 1만7천6백종에서 1만2천6백종으로 줄인다.

또 보고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복된 보고나 민간기업체에 대한 보고요구를 감축하고 정부내의 보고문서를 대폭 감축, 일선행정기관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행정電算化 5개년계획을 계속추진, 13개기관에 15대의 電算機를 설치, 총65대로 늘리고 2차5개년계획을 내년부터 수립, 시행할 예정.

[人事管理] 公職체용요건을 강화, 학교생활기록을 채용시험에 반영하여 과성적을 위주로 하던 채용방식을 개선, 全人格을 평가할수있도록 면접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키 위한 한방안으로 재산등록제실시를 준비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우대할계획이다.

공정한인사운영을 위해 극가관, 사명감, 청렴도등을 내용으로 하는 人格과 능력평정, 경력, 경력 기본사항을 평정요소로 삼는 人事평정제도를 4급이하에 대해 적용하고 5급이하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제를 계속적용한다.

[政府행사간소화] 예산과의 성과를 위해 행사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해 사규모를 축소하고 年例행사를 지양하며 지방행사를 없애거나 축소한다. 또 행사때의 대규모 동원화시설을 억제하고 기념행사의 主행사를 억제하고 主재로 위임한다.

[敎育·訓練] 국내외위탁교육을 확대, 공직의 勤務上限制의 신설등 해외훈련인원을 81년의 80명에서 86년엔 3백명으로 늘리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자도 86년엔 2백명으로 늘릴것을 목표로한다.

5급이상관리자 양성교육을 강화, 5급 신규채용자에게 2개월~1년간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5급 승진 시험합격자에게는 1개월간의 관리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3급국장, 4급(과장)으로의 승진후보자에게 1~2개월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

1~3급에 대한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 2~3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厚生·福祉] 급정보비 대한 研究를 우대하기 위해 연구직에 대한 단일號俸체계를 채택하며 보수제도를 개선, 일반직·경찰·검찰등의 보수관계법령을 一元化한다.

또 86년까지 1만호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아래 우선 올해에는 1천9백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2백40억원을 들여 주택마련 지원사업으로 올해에 1만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씩 주택자금을 융자(4천명)해주거나 7백30만원씩 국민주택 특별분양융자(6천명)를 실시하며 國庫負擔奬學金, 年金貸付奬學金등 각종貸付사업을 확대, 17만6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할 계획.

서울·釜山및 각도청소재지에 공무원年金회관을 건립키로하고 1단계사업으로 내년까지 서울·釜山지역에 회관을 세워 각종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年金法을 개정, 私立학교교원의 재직기간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合算토록할 방침이다.

濠 資源개발 참여

丁議長제의 兩院議長과 南北對話논의

濠洲를 방문중인 丁來赫국회의장은 16일(현지시간)젤만코웬총독을 관저로 방문, 韓濠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과 경제협력문제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회에 보고해 17일 수행팀이 국회에 보고해 17일 ...

丁의장은 이날 젤만코웬총독에게 『양국의 기존우호관계를 더한층 비탕으로 앞으로 交易확대하고 특히 濠洲의 자원개발에 한국이 적극 투자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젤만코웬총독은 『전쟁의 폐허속에서 이룩한 한국의 놀랄만한 경제발전은 세계적인기적』이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안에 한국을 방문,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丁의장은 이날 하오엔 소네덴 하원의장과 영상원의장을 방문, 우리의 민주통일방안과 20개 對北시범사업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대해 兩院의장은 『한반도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희망하며 北韓도 이제는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盧외무 스리랑카서 會談 스리랑카를 방문중인 盧信永外務部長官(中)이 16일 수미어스·자예와르데네대통령을 예방,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샤훌·하메드스리랑카外相.【콜롬보16日AP=聯合】

內務小委 請願심사

국회는 17일하오 內務委請願심사小委를 열고 서울岩寺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청원등 13가지를 심의했다. 小委가 심의한 請願은 다음과같다.

▲岩寺지구관계▲蘭芝島토지수용▲盤浦상가시장개설허가취소및市場法개정요구▲하숙업자生計대책▲綠地지역내주택개량▲利川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雲峨山관광단지...

브라질 下院議員團 國會초청 4명來韓

브라질下院의 교류과위원장 인 폴라비오·포르텔라·마르실리오의원등 브라질하원의원단 4명이 국회초청으로 17일來韓했다.

이들 의원단은 3일간의 訪韓기간중 蔡汶植국회의장 대리를 비롯, 국회와 행정부의...

國會法司委 어제부터 12개法案심의 착수

국회法司委는 17일 하오계류중인 헌법위원회법 개정법률안등 12개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2개법안은 法司委 제1小委(위원장 李建鎬의원)에서 먼저다루게되는데 12개改正法案은 다음과같다.

▲증권거래법 ▲觀光사업법▲軍納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해외이주법▲家畜전염병예방법 ▲汚物청소법▲의료기사법▲한공법▲선박안전법▲원자력법▲헌법위원회법▲시설대여산업육성법

석탄導入 移越策강구

정부·民正 政府備蓄늘려 滯貨최대한해소"

정부와 民正黨은 석탄체화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정부備蓄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수입탄을 억제할 방침이다.

江原道지구당순시차 春川에온 尹錫淳 民正黨사무차장은 17일 이같이 밝히면서『부족물량만을 수입할 방침이며 현재 계약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도입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저질탄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원도지역에 저질탄을 활용한 신규발전소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이와함께 현재 3천8백킬로칼로리급 30만톤사용규모의 嶺東발전소시설을 3천5백킬로칼로리급 42만톤규모로 전환시킬계획』이라고 밝혔다.

尹차장은 또 『규폐환자의 보호를위해 근본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는한편 규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산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서 경미한 규폐환자라도 보호대상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春川=聯】

美陸軍省 공로훈장 위컴, 太完善씨에

주요인사를 예방하고 전방및 大宇중공업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날 위컴사령관은 龍山8군사령부에서 가진 훈장전달식에서『太完善씨는 지난75년12월부터 82년1월까지 6년동안 한미친선회 회장으로있으면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위문공연, 한국 가정방문, 산업시찰및 관광등 각종행사를 주관,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치하했다.

존·A·위컴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하오 한미친선회 상임고문 太完善씨에게 미육군성이 주는 민간인 공로훈장을 전달했다.

朝總聯, 商工人독려 金日成생일에 獻金

【서울=聯】朝總聯은 지난 9일 東京에서 소위 『商工人연합회』 제20기 제2차회의를 소집, 전체 商工人들에게 『수령과 黨중앙』(金日成父子)에 대한 최대의 충성심과 열성을 발휘, 金日成의70회 「생일」(4·15)을 앞두고 獻金모금을 목적으로 벌이고있는 소위 「3百일간에 의 전적인 추진을 독려한것으로 국제신문」이 14일 보도했다.

外道남편들 혼내줘

★칠레아내들 特攻隊 조직

칠레에서는 아내의 눈을 피해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을 혼내주기 위한 여성특공대가 조직되어 맹활약하고 있다.

자칭 「여성엘로아운동」단원이라는 이들 여성특공대는 가라데무술을 익혀 스키선수같은 복면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며 정부와 해변가나 숲속 차안에서 애인과 대로 흔들 찾아내 옷을 벗기고 신문하는 등 망신을 주고 있는데 지난 달 동안 이들에게 봉변당한 남편들은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자신방어 하는일"

【안토파가스타(칠레)=聯】

자신을 특공대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그들이 『칠레북부에서는 아내들의 눈을 피해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를 학대하는것이 쉬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호언했다.

★敎皇, 修女對面때우선과제

일 나이지리아 이바단소재 聖베드로및 바오로신학교를 가득메운 수녀들에게 교황요한·바오로2세는15일

수녀들을 만날때 제일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보라고 질문.

이에 대해 수녀들은 『설교한다』 『수녀들과 함께 기도한다』 또는 『수녀들이 하는 일을 격려한다』등의 대답을 제시했으나 교황은 정답(?)이 『수녀들로부터 교황자신을 방어하는것이 제일먼저해야할일』이라고 말함으로써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

【이바단(나이지리아)=AP】

他界엔 生命體없어

★蘇科學院長 밝혀

지구외의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다는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소련과학원장 아나톨리·알렉산드로프가 16일 말했다.

그는 이날 노조기관지인 트루드(노동)紙와의 회견에서 그렇다고 『그러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로프는 『여지껏 많은 과학자들이 다른천체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우주는 광대하기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단언할수는 없다고 말했다.【모스크바=聯】

北傀·中共水運協定

【서울=聯】中共·北傀간의 국경·강하천水上운항협조위원회 제21차회의가 지난11일 遼東省 瀋陽에서 열려 양측간에 해당협의서가 조인되었다고 北京방송이 15일보도했다.

이방송은 이협의서가 北傀의 朝鮮기석과 中共의 張소이가 각각 양측을 대표한 가운데서명, 조인되었다고 말하고 쌍방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로보트勤勞者」시대 온다

不平없는 「全天候人間」 속속代替

重工業 특히脚光"80年代 20배로"

"제2産業革命 시대" 예언

추우나 더우나 하루에 24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쉬지않고 계속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은 지칠줄도 모르고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으며 더더구나 노조를 결성하거나 사장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일등은 생각조차 않는다. 이런 이상적인 「근로자」란 바로 로보트를 말한다.

소련은 앞으로 2~3년내에 각공장에서 사용중인 로보트의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으로 있으며 일본은 오는 90년까지 로보트의수가 현재보다 20배로 확대될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로보트를 이용, 앞으로 공장에서의 작업안태에 획기적인변화를 불어넣으려 하고있다. 로보트산업계 전문가들은 산업로보트로인해 앞으로 10여년사이에 선진공업국은 커다란 변혁을 겪게될것으로 보고있다.

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 응용과학대학장인 마틴·위드풀박사는 『지금은 제2차산업혁명의 초기단계라 할수있다』고 말하고있다.

보트를 관매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레이먼드·도노번 미국노동장관은 지난달레이건 대통령직속의 생산성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로보트공학의 발달로 인해 『오는 90년까지는 모든 공장근로자의 전반가량이 사무직계통에서 근무하게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난 50년대 로보트산업의 선구자였던 조세프·잉겔버거씨가 사장으로있는 코네티컷주 댄베리시의 유니메이션사 대변인은 『장래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61년에 최근의 로보트를만들어 냈고 일본과 서구의 로보트생산에 기술을제공했던 미국 최고최대의 로보트제작회사인 유니메이션은 대당2만7천5백~7만8천달러의 로보트를 원간 80~1백대정도

는데 이 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칠영향은 1차산업혁명의 영향보다 훨씬 클것이다』라고 말하고있다.

정부와 업계의 예상에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80년대말경 각각 20억달러어치의 로

무직계통에서 근무하게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씨 국내외에 관매하고있다. 제조회사 특히 자동차회사들이 현재로서는 로보트를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외의 산업분야에서도 가능한한 신속하게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로보트들은 고온·유독가스·소음·금속파편등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일을할수 있으며 사람처럼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도 없기때문에 중공업분야에서 특히환영을 받고있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더많은 로보트가 이용되지않고있는 이유로 美國에서 사용중인 산업로보트가 기업경영진들에게 아직 단한 환영을 받지못했던 사실에 비유하고있다.

예는 기업인들로부터 그리 대

로보트의 작업속도는 인간의 작업속도보다 빠르며 무거운짐을 들거나 정확도·숙련도등에 있어서도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보트의 이용방법을 제대로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면서 이를 지금은 어디서나 사용되고있는 컴퓨터가 초기에 당하고 있으며 현재 3백대를 보유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즈사는 90년까지 이를 1만5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모든 자동차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트의 수는 현재 5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산업로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업계. 수대의 로보트가 조립공정을 수행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산업로보트를 보유하고있는 일본에서도 자동차업계가 산업로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산업로보트가 현재는 1만4천대에서 90년에는 20배인 28만여대에 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1천3백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독을필두로 프랑스·영국·이탈리아등이 산업로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西獨은 90년까지 로보트의 수를 1만대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

일본과 서독에서는 로보트를 제작하는 로보트도 이미 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뉴욕=聯】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社說

妥結基調 매듭짓길

—韓·日2차實務會談에 거는 期待

외교정책에서 흔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일컫는 決定의 본질은 選擇을 뜻하거니와, 그 選擇肢의 정비는 참모적 기능을 겸비한 고위 實務者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다. 懸案인 韓日經濟協力문제도 오늘부터 이틀동안 東京에서 열리는 양국의 제2차 고위實務者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던 選擇肢정비의 윤곽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관점에서 퍽 큰 관심을 끌게한다. 이회담에서 밝혀질 「검토 결과」의 전달이 앞으로의 外相회담 내지 首腦회담 준비에 직결될것이다.

그런데 사꾸라우찌(櫻內) 日本外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實務者회담은 이번것이 마지막이고 「그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절충으로 진입할수도 있을것」임을 내다봤다고한다. 또 韓國측이 60억달러對韓經協문제에 관하여 조속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데대한 반응으로서 「日本은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韓國에 총액을 제시해야할것」이라고 말하는가운데 外相회담 개최에의 여운을 남겼다. 經協方式에 관해서는 年度別이아닌 「韓國의 5개년계획에대한 협력」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양국 外相들의 示唆的發言과 여러가지 조짐으로 미루어 韓日經協문제는 이제 긍정적 방향에서 조기타결의 기미를 엿보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수 있겠다. 이경우 서울측은 經協의 名分이나 性格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다른한편 東京측은 方式面에서 양보한 셈이다. 신축성있는 외교적 절충의 성숙을 헤아리게 하는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중요한 局面은 양국의 최고 政策決定수준의 리더십에 나타난 적극성과 大局的 判斷이다.

그럴수록 막바지 고비에 이른 實務者회담이 비록 大局을 그르치는 일은 없다해도 부질없는 잡음의 첨가로 하여 본시 「타이밍」이 중요한 外相회담을 준비하는 行程에서 시간의 낭비없도록 다짐해 주기바란다. 일반적으로 實務陣으로 대표되는 官僚制度의 마이너스 면은 활기있는 前向的 姿勢의 빈곤이라고 알려져왔거니와 그러한 惰性은 현시점에서 快擲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日本實務者측에 稟議制전통이 보다 강하게 고착되어 있으며 또 그外務省이 臨機應變에 능숙한 반면 長期計劃 수립에 차도가 있다는 사정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어 添言해두는 바이다.

나아가서 彈力性 있는 「정치적 판단」의 前提로 되는것은 키신저도 갈파했듯이 「政府內 각 部處의 서로 다른 利害의 조정을 맴돌다시피하는 官僚的 妥協」을 단호하게 초월하는 용의라고 풀이된다. 이 경우에 우리는 뒤늦지 않은 양국 外相회담내지 首腦회담개최가 바람직하며, 또 經協의 총액은 巨視的인 고려에서 가능 최대한의 것으로 되어야하는 現實的 當爲性을 念頭에 두게 된다. 정치적 결단은 合理的이어야 한다는데 그 合理性은 韓日양국에 걸쳐 최대 公約數的·長期的인 方向感覺및 目的設定의 테두리에서 관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實務者회담은 당연히 상호간에 제시된 情報와 검토결과를 밝히고 자체의 입장을 재정리하는 것으로 되게마련이다. 그러나 實務的이니 專門的이니 하는 견해가 너무 치밀하거나 소심스럽게 표현된다면 도리어 政策決定의 基調로될 광범하고 실천적인 視野를 흐리게 할는지도 모른다. 모처럼 經協을 추진한다면서 국민심리의 미묘한 움직임에 대한 洞察을 결여해서도 안될 일이다. 韓日外相會談을 제때에 햇볕보게하는 整地作業에 뚜렷한 有終之美있기를 刮目 期待하고자 한다.

文化的 隔差의 解消

—文藝회관등 地方擴大계획을 보고

全國人口의 22·3%인 서울사람이 全所得의 28·5%를 차지하고있다고 지난10일 韓國商議報告(大韓商議)는 말했다. 서울에는 또한 全國유치원의 30·1%, 大學의 43·5%가 몰려있다. 텔레비전은 44·8%가 있다고 한다.

한나라 人口의 5분의1 以上이 한군데 몰려있는 것도 한국적인 現象이지만, 그사람들이 國力의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狀況도 놀랄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서울사람이 누리고 있는 經濟的水準이나, 또한 生活의 便宜에만 이런 不均衡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에 잡히지않는 文化的인 機會의 不均衡은 더 深刻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른다.

우선 大學의 43·5%가 서울에 몰려있다는것부터 文化的集中現象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大衆媒體를 타지않는 高級文化일수록 이런 現象은 深刻하다.

그것은 現代의 文化活動이 大部分 일정한 規模의 공간과 施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首都圈에 人口와 돈뿐만아니라 文化까지 집중돼있는 不均衡상태를 고치자면 그만큼의 投資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文公部가 淸州·全州·光州에 이미 세운 綜合文藝會館의 建設계획을 늘려잡기로했다는 것도 이런 現實判斷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된다. 16일 靑瓦臺에서 李光杓文公部장관이 보고한 業務계획에 의하면 全國 市·道마다 하나씩 綜合文藝會館을 세우기로 했다한다.

또한 晋州·淸州·濟州·安東에도 博物館을 마련키로하고, 地方대도시에다 出版金庫지원으로 大型書店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서 全斗煥 大統領은 『地域間 문화격차의 解消』를 강조했다. 綜合文藝會館이나 博物館건설계획이 서울과 地方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積極的인 寄與를 할수있도록 짜여지고 집행되기를 期待하고싶다.

文公部당국이 伽倻文化圈과 中原文化圈의 文化財保存에 눈을 돌렸다는 것도 이런 觀點에서 볼수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의 文化財行政은 新羅에 偏重했다가 最近 百濟로 重點이옮겨졌으나 伽倻文化圈은 事實上 關心圈밖에 있었던것과 다름없는 狀態였다.

그러나 近來 이地域에서 重要한 遺物이 나오는등 伽倻文化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필요하게 된 계제이다. 이미 이地域의 遺蹟들은 盜掘과 破壞의 受難을 겪은 뒤이지만 한시바삐 保存과 硏究作業이 있어야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中原文化圈에 대해서도 文化財行政의 關心이 쏠린다는 것은 結局 우리의 文化的關心이 어느 特定地域에 머물지 않는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모든 機能이 서울 한군데에 集中되다시피한것을 고친다는 것뿐 아니라, 文化行政의 比重을 全國에 擴大해야 된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行政당국의 努力은 어디까지나 市民들自身의 努力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文藝會館이건 文化財保存이건 결국 國民自身의 積極的인 參與로써만 成果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특히 딴分野와 달라 文化活動은 個人的行爲로 始作해서 消費者에게 到達한다는 特徵을 갖고있다.

당국의 地方文化發展을 爲한 투자가 보다 效率的인 열매를 맺도록 이런 特徵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地方文化活動이 文藝會館이나 博物館이라는 채널을 通해 地域社會全體에 고루 寄與할것을 기대하고싶다.

政局往來

民韓 후속人事 눈독 자위는 院內 副總務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제6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출전자격 : 만17세~25세 미혼한인여성.

미녀 출전 신청마감 : 4월10일 하오5시

접 수 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연락전화 : (416) 533-2361~4

진행과정 : 하오6 : 00~7 : 00—칵테일

" 7 : 00~8 : 00—디너(만찬)

" 8 : 00~10 : 00—미인대회

" 10 : 00~10 : 30—연예인쇼

" 10 : 30~11 : 00—심사발표및 시상

" 11 : 00~1 : 00—댄스파티

입 장 료 : $30.00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붉은旅團」 첩자 「두더지」들 伊議會·法務省까지 침투

「伊警 特攻작전」 빼내고 官吏 轉出入명단 入手

人權침해 항의示威 이탈리아 급진당원 5명이 폴란드, 엘살바도르, 터키에서의 인권침해에 항의, 16일 로마의 美대사관앞에서 밧줄로 한데묶은 손을 들어보이며 시위를 벌이고있다。이들은 蘇聯대사관앞에서도 똑같은 시위를벌였는데 왼쪽끝에 경찰이 지켜보고있다。【로마17日UPI聯=聯】

【로마16日時=合】이탈리아 경찰당국은 16일 도시게릴라 「붉은旅團」의 첩자인 『두더지』들이 의회뿐아니라 법무성에까지 침투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립전화 기관지 오트디네·프롬리코도 붉은여단의 아지트에서 압수한 자료로 보아 테러리스트들이 로마茂테러 특수경찰본부의 작전계획, 책상위치, 배선상황, 비밀전화번호, 완벽한 최신화 공대원의 명단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수사관들은 압수된 자료와 검거된 테러범신문을 통해 얻어낸 정보로는 붉은여단소속 한여성 『두더지』가 법무성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여인은 오직 테러리스트 암호명인 「마리넬라」만 알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처음에는 「마리넬라」를 80년 로마경시청에서 일하다 체포됐던 알레산드라·데·루카女人(28)으로 단정했었다.

그러나 루카가 체포된후에도 베일에 가린 「마리넬라」가 계속 붉은여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형무소로 부터는 도저히 입수 될 수없는 형무소조직편성뿐아니라 테러리스트의 공격표적인 법무성관리들의 최신 전·출입자 명단까지 넘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세사레·아르보레(28)라는 의회의 한 전화교환수가 붉은여단의 스파이 노릇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체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駐레바논軍 일부撤收

시리아, 回敎徒 무장봉기直面 대처

【베이루트16日時=合】국내 과격파회교도들의 무장봉기에 직면해있는 시리아당국은 6년전 평화유지군으로 군대를 레바논에 파견한이래 처음으로 최근 이들의 일부를 본국으로 철수했다고 레바논군사소식통들이 16일말했다.

한소식통은 시리아가 최근 레바논제2의 도시인 트리폴리와 베카계곡에 배치돼있던 自國軍중 3천명을 철수시켰다고 밝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하페즈·아사드 대통령의 동생 리파트·아사드씨가 이끄는 방위여단에 소속한 특수전요원들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레바논이 시리아軍의 부분철수에따른 치안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일 정규군과 보안군부대들에 대해 전면적인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大肅淸、「4人幇 잔당」겨냥

中共 紅旗보도 "理念的 不純분자 일거에 除去"

【北京16日時=合】중공당기관지 紅旗는 16일 중공당이 매우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공언하고 수천만명의 정적과 무능한 관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숙청작업이 「4人幇의 잔당」을 겨냥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는 안되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는 黨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며 만연되어있는 이문제는 매우 …』 … 했다.

메아리

自由中國이 中共의 「소프트볼」팀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臺灣은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선수권대회를 오는 7월2일부터 11일까지 臺北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국제소프트볼연맹(ISF)에 가입한 中共등 46개 모든 회원국팀을 부르는 초청장을 발송키로 한것이다.

1949년 中共軍에 밀려 臺灣으로 옮겨온 國民黨정부는 그동안 일체 中共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거부해왔다. 中共은 中共만이 唯一合法政府이고 臺灣은 일개 地域政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했었다. 中共이 國共간의 合作統一방안을 내놓을때도 다른것은 양보할수 있으나 自由中國의 國歌와 靑天白日旗는 인정할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다.

自由中國과 中共간의 「和解」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것이었는데도 이번에 자유중국이 中共소프트볼팀을 불러들이기로 決定하였다는 사실은 北韓과의 대화나 交流를 갖지못하고 隔絶되어있는 우리로서는 눈길을 돌려두지 않을수없는 關心事이다.

ISF의 돈·포터사무국장과 臺灣측대회조직위원회 何明璋회장간에는 會員國 모두에게 비자發給을 보장하고 臺灣入國을 협조한다는 協定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自由中國政府는 中共팀에 대해 臺灣入國비자를 發給해야하나 中共이

소프트볼 外交

과연 臺灣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되는 入國査證발급신청을 낼것인지 주목거리이다.

또 競技진행시 참가국의 國旗게양과 國歌연주여부는 ISF규정대로 개최국의 「特權」에 속한다지만 주최국의 국기게양과 국가연주는 開·閉會式에서 허용되고있어 이때는 대회참가국이 국제관례대로 경의를 표해야한다.

보태서 주최국 國家元首에게는 敬禮를 해야하는 규정도 강조되고 있어 이런 세부적인 절차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일지않을까 염려하는 측도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볼이 보급되지않아서 ISF의 회원국이 아니며 그에 따라 臺灣의 소프트볼大會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경기는 소년·소녀들이 위험하지 않게 즐길수 있는 축소된 野球와 같은 것으로 고안되었다. 가죽으로 된 둘레30.5㎝의 말랑한 공(1백70g)을 야구배트보다 짧고 가벼운 방망이로 치고달린다.

지난81년 9월30일 中共의 全人代常務委員長인 葉劍英이 提示한 9개항 統一方案의 두번째는 『兩人民間의…體育交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中共도 결국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臺灣은 불러들이고 中共은 기꺼이 參加하여 平壤側에다 交流의 한 본보기를 이번에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다.

蘇화물선 침몰自招 和蘭船 구조拒否로

【할리팩스(노바·스코티아)17日時=合】지난 16일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 승무원33명을 태운채 침몰한 소련화물선은 사고당시 네덜란드선의 구조를 거부, 다른 소련선박을 기다리다 화를 자초한것이라고 이곳 관리들이 밝혔다.

한편 운수성관리들은 침몰 콘테이너선에는 모두 38명의 승무원이 타고있었다는 말을 한생존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波국민 權利인정될때까지 鬪爭

敎皇 阿洲순방길 미사집전…"勞動者는 잦은罷業삼가야"

【라고스16日時=合】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16일 祖國폴란드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인정될 때까지 폴란드 사태를 계속 크게 우려하겠다고 선언했다.

요한·바오로2세는 5일간의 나이지리아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집전, 외교관들에 대한 연설, 국외추방된 나이지리아거주 폴란드人접견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교황은 라고스주재 교황청대사관에서 약3백명의 폴란드人들을 접견한자리에서 폴란드인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때까지 … 고 말했다.

교황은 라고스시내의 聖十字架 성당에서 이날상오 … 러나 파업은 『인권을 수호하는 특수한 조치』로 여전히 인정된다고 …

교황은 17일 다음 방문지인 베닌으로 떠난다.

『鐵窓속의 독수리』-바웬사

폴란드 戒嚴2개월…그의 近況은…

家族·친지만面會허용 軟禁속 敎皇등에密書

뚜렷한 소명의식갖고 逆境견뎌

◇사색에 잠긴 바웬사 파이프를 물고 낙엽진 시골길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던 바웬사. 그는 「오늘의 폴란드」를 예견하고 있었을까…

공산당의 철벽을 녹이고 폴란드에 자유화바람을 이끌었던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

지난해 12월12일 계엄선포 이후 두달이 넘도록 그의 행방에 관해 추측만 만발한뿐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려지고 있지않다.

분명한건 부인 다누타여사 등 직계가족과 몇몇 성직자들에게만 면회가 허용되었다는 사실뿐. 그러나 바웬사를 만난 이들은 당국의 함구령탓인지 바웬사 개인신상에 해로울까 우려한탓인지 일체 입을 다물고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연금상태에서 태어나 아직 얼굴조차 보지못한 막내딸 마리아·빅토리아의 영세식이있을 오는 3월7일까지는 혹시 풀려나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한가닥 피어나고 있다.

계엄당국에 체포된 바웬사는 그간 비밀감방에 수감되었다느니, 심장마비증세를 보여 중태에 빠졌으며 계엄의 충격에 놀라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느니, 위협에 못이겨 계엄당국에 협조하고있다느니 여러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웬사는 앞으로 전개될 폴란드정국의 향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있는 중요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연금생활중에도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에게 비밀서한을 보내 폴란드사태를 호소했고 국민의 비폭력적인 계속저항을 촉구하는 비밀메시지를 자유노조 지하신문을 통해 발표하기도했다.

폴란드계엄당국이 바웬사를 체포하거나 수용소에 수감하지않고 다른 노조지도자와 다르게 취급한것은 바웬사를 회유협박하여 한국민무마에 이용할수있다는 속셈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 바웬사의 신변위해가 가져올 계엄항쟁의 「血化」도 고려에 넣은것같다.

폴란드정부가 바웬사를 계엄통치에 이용하려 들었다면 그속셈은 일단 실패했다고 볼수있다. 바웬사는 정부와의 단독협상을 계속 거부하고있다.

…

【李炳圭기자】

◇逮捕전의 단란했던 한때 체포되기 꼭1년전인 80년11월 그디니스크의 방2칸짜리 아파트에서 가족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던 레흐·바웬사㊨。

波계엄1년 存續예상

바웬사등 一部拘束者 釋放가능성

【바르샤바·모스크바16日時=合】작년 12월13일 선포된 폴란드 계엄령은 비록 계엄의일부규제조치가 곧완화될가능성이 있다해도 가까운장래에 계엄령 그 자체가 해제될것 같지는 않으며 아마도 앞으로 1년동안 더 존속될지 모른다고 폴란드관변소식통들이 16일 시사했다.

이소식통들은 黨제1서기 겸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이 조만간 통금해제, 여행금지해제및 도로봉쇄제거등의 계엄규제완화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계엄규제의 골자인 노조활동중지, 주요기업의 군영화및 반대파 …

◇10代의 요정 브루크·실즈孃 10대의 우상 브루크·실즈양이 15일 ABC-TV의 굿·모닝·아메리카쇼에 출연, 자신을 똑같이 묘사한 브루크·실즈 인형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욕15日AP聯=聯】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BIG SEVEN무역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3월16일까지 BIG SALE
$140 Discount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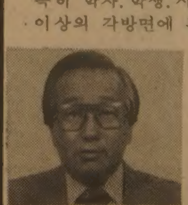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 교인, 학교, 각 단체 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제공함.



신 용 묵

신 용 묵
전화 : B)536—9082,
R)245—7522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9>

共和黨 事前조직 內幕 ④

워커힐의 「비행접시」소동

브리핑받던 最高委員들 感情폭발

철저조사 건의에 한때 避身하기도

生死 같이한 革命同志들 결국 分裂·浮沈의 갈림길

5·16후 1년반이지나고 정치활동이 再開되기얼마전인 62년12월하순 어느날.

워커힐의 큼직한 방에는 혁명주체, 최고위원들이 모여 브리핑에 귀를 기울였다.

극비리에 事前組織작업을 추진해온 新黨(後에 共和)創黨계획案을최고위원들에게 설명하고있는것이다.

질의·답변중 격한충돌

방안에는 기침소리하나없이 쥴끝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브리핑이 끝난뒤 최고위원들과 사전조직추진측간에 열띤질의답변이 오랫동안오갔고 분위기는 점차 加熱됐다. 설명·토론에 이어 酒宴에 접어들자 일부 위원들의 「참았던 感情」(?)이 폭발했다.

『목숨을걸고 漢江을넘었으면 행동을 같이해야지 몰래 黨을 조직할수있는가』『너희들끼리 독점을 하겠다는것이냐』는 등의 분노와 역정에 대해 『어쩔수없는 준비작업이었다』『독점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新黨에 참여할수있게하자는 것이다』는등의 해명이 高聲으로 오갔다.

주먹으로 상을 치는소리、접시가 날아 깨지는소리등으로 酒宴은 깨지고말았다. 新黨사전조직에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비롯된 소위 「飛行접시사건」의 한 斷面이었다.

이해(62년) 年初에 시작되어 끝내 혁명주체들간의 분열을 몰고온 共和黨의 事前組織작업은 骨幹이마련된뒤부터는 서너갈래로 分化되어 각분야별로 서로 補完하면서 民政街道까지 내닫는다.

「再建同志會」란 胴體가 주축을 이루고 여기에 「對外問題研究所」란 간판을 단 브레인트러스트가 民政의 靑寫眞을 만드는 보조기능을 한다.

그리고 民政의 새질서를 형성할 각종 政治관계법을 나름대로 검토하여 최고회의에 반영시키는작업을 「組織發展局」이 담당한다. 비밀훈련원이 한몫을 한것도 물론이다.

某기관의 최고책임자인 金鍾泌씨는 民政이양계획이 발표된 62년 8월에 조금 앞서 南山옆의 한건물에 「對外問題研究所」란 간판을붙였다.

某기관의 附設기구로 發足된 이 기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이었고 康誠元 崔永斗(前의원)、金週啟씨(6代의원)등이이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을맡았다.

거의 大學敎授들 징발

『각대학에서 신망있는 교수들을 골랐는데 참여를 꺼리는 교수들은 징발하다시피 했지요.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그들을 동원할수가 없었으니까요』(당시관계자K씨증언)

尹天柱(당시 高大교수) 金成熺(당시 서울大교수) 姜尚雲씨(당시 中央大교수)등을 비롯、정치학관계 소장교수 8~9명이 某기관의 委員이란 이름으로 「對外問題研究所」를 구성했다. 대우는 월30만원 정도의 수당과 지프1대가 배정되는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優待였다.

主임무는 「對外문제」가 아니라 「對內문제」즉 民政의 靑寫眞을 만드는 일이었다.

民政이양시기를 63년 8월15일로 잡고 民政을 이끌어갈 主役정당의 기구와 강령、정책을 만드는등 民政이양시까지 軍政이 해야할 각종 준비사항을 마련하는 과제였다.

그로부터 약 두달동안의 연구끝에 그해 10월께 나온 작품이 「8·15計劃書」란것이었다.

金鍾泌씨는「對外問題研究所」가 民政構圖작성에 착수할 무렵 尹天柱 金成熺 康誠元 鄭智元씨등을 모아놓고 색다른 과제를 던지며 아이디어를 구했다.

즉 朴正熙의장이 대통령등에입후보하지않고도 계속 국가원수같은 지위에서 정부를 이끌고 갈수 없겠느냐는것.

大統領않고 執權못하나

그러나 결론은 그런 憲法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국민감정이 용서하지 않을것이고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無理를 하지 않고 朴의장을 비롯한 혁명주체세력이 계속 民政을 이끌고 갈수있는 제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것이 바로 「8·15계획서」였다.

그들이 軍服을 벗고 民政을 主導하려면 우선 선거에서 舊정치인을 이겨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軍人출신만이 아닌 民間조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지나간 軍政의 업적평가까지 곁들인 이 民政청사진과 아울러「對外問題研究所」가 만든 다른 하나의 作品은 소위 二元化라는 黨組織기구의 청사진이다.

二元조직은 尹天柱 金成熺씨가만든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책임자였던 L씨 (7·9·10代의원)는 5·16이전의 국회를 되돌아볼때 국회萬能主義는 무슨일이있더라도 지양해야겠고 黨이 의원들을 완전 장악할수있도록 黨우위를 확보하기위해 사무국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二元조직의 도입 동기를 설명했다.

國會萬能主義 없애자

이같은 조직원리는 과거정당이입후보자 중심의 私組織으로 朋黨的성격을 띰에따라 부패와 無能의 소지가 있었기때문에 이를 배제하기위해 英國保守黨의조직형태를 모델로 본뜬것이라고 李씨는 설명했다.

따라서 新黨은 입후보자로부터公共조직을 독립시킴으로써 파벌을배제하고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代議조직 政策立案조직 사무조직의 셋으로 鼎立시키고 총재와 黨의장의 강력한 지도체제아래 黨務와 자금관리를 사무조직에 一元化하도록 했다.

정당의至上목표가 執權이라면 이를위한 자체조직의 內實化와 더불어 선거에서 이길수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일 또한 중요한것이었다.

이일을 담당하기위해 再建同志會안에 새로 생긴 기구가 바로「組織發展局」이었다.

再建同志會안에서 정책분야를 맡고있던 李浩範씨(作故·前재무차관)를 局長으로하여 朴東潤(당시 延大강사) 蘇斗永 孫禧植씨등 10여명이 「組織發展局」을 구성했다.

憲法·政黨法등 연구

이들은 처음한동안 舊정치인에대한성분을 분석하고 정치활동 可否에대한 의견을 某기관을 경유하여 최고회의 政治淨化委員會에 보내는 일을 했다.

그일이 끝나자 새정치관계立法案에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최고회의에서심의되고있는 憲法 정당법 선거법등의 요강을 얻어와서 연구한뒤 再建同志會의견과입장을 최고회의에 전달하는것이 중요한임무였다.

이무렵 (62년7월)李永根씨는 차장職을 그만두고 再建同志會 사무총장으로 나와 앉았고 康誠元 鄭智元씨도 역시 그기관을 떠나 同志會일에 專念하고 있었다.

同志會와 최고회의간의연락은 李총장과 吳致成 金炯旭위원간에이뤄졌는데 사전조직을 최고회의에공공연하게 노출시킬수없는 사정때문에 연락관계도 비밀리에 해야했다.

이동안 新黨준비체제도 조직확대에 따라 기구를 늘리지 않을수없었다. 조사부는 조사 선전으로 分家하여 선전부는 徐仁錫씨가 맡아 종로3가주유소앞 빌딩으로、조사부는 明洞르바르 茶房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사부는 다시 判斷局과 安全局으로나뉘어져 李榮坡 李明善씨가각각 局長을맡았는데 前者는 日日정세분석을,후자는 對內보안을 담당했다. 그러나 10월이되자 시내 여러곳에 흩어져있던 據點들은 대부분 철수되어 조직 조사 선전는北倉洞의 5층빌딩으로 모였다.

尹冑榮씨가 들어와 선전부장에、선전부장이던 徐仁錫씨는 조사부장으로갔고 얼마뒤에는 金東煥씨가駐美公使職을 그만두고 돌아와 사무총장에、사무총장이던 李永根씨는 次長으로 내려갔다.

10월하순부터는 代議員·포섭에 들어가 12월말까지 모두마치고 63년1월10일을 D데이로 잡아 「地下共和黨」의 5단계露出계획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이 事前조직은 뒤에 두고 두고 共和黨의 內紛으로、파벌싸움으로 번져 執權黨내의 政局不安을 초래하는 불씨가되었다.

당시某기관의 수사본부장이던 金在春씨가62년6월께 이사전조직을 탐지함으로써 기나긴 內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5단계의 地下共和黨

당시 최고회의에서 金鍾泌씨의최대 라이벌의하나인 金在春씨는 사전조직의 전모를 朴의장에게 보고하여 一網打盡하려했고 金鍾泌씨는 이에맞서는등 兩金씨는 팽팽한 神經戰을 계속해야했다.

金在春씨는『金鍾泌씨가 은밀히 사전조직을 꾸미고 있는데 증권파동등이 조직자금과 관련이 있다』는등「의혹이 많다」는 내용의 보고를 朴의장에게했다.

이보고에 朴의장은 깜짝놀라는기색이더니『전혀 뜻밖이다。보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金在春씨의 朴의장에 대한 보고는 눈에띄게 制動이 걸리기 시작했다.

再建同志會는 이수사에 사내에있는 各사무실마다 혼비백산하여 서류를 불태우고 피신하는등 소동을 벌였다.

이러한 사전조직을 親金鍾泌씨계의 최고위원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다른 최고위원들에겐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최고위원과 상의도없이 비밀리에 新黨을 조직,일방적으로 獨善獨走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야단들이었다。生死를 걸고 혁명을 같이한 동지를 빼돌리고 독자적인 自救策만 찾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최고회의안에서 일어나면서 갈등은 노골화했다. 최고회의안에서 金炯旭,吉在號、玉昌鎬、洪鍾哲씨등은 「金鍾泌플랜」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그밖의 최고위원들은 金씨의「獨走」에 비난을하고나섰다。이때쯤 反金鍾泌라인이라는말이 나오면서 이들의 反金공세는 점차 확대돼갔다.

그중에서도 財經委員長이란 자리에 있으면서도 증권파동을 알지못했던 金東河장군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反JP人士들 更迭

혁명주체세력간의 내분이 노골화하자 朴의장은 7월10일 金東河씨를 外務國防委員長으로、柳陽洙씨를 財經委員長으로 바꾸고 金在春씨를 본부장에서 免職시킴으로써 수습을 시도했다.

사전조직是非는 이로써 한동안 고개를 숙이는듯 했으나 사전조직중인 再建黨과관련한 최고위원들의 去就를 두고 다시 시끄러워졌다.

결국 앞에서 밝힌대로 사전조직을 추진내지 지지하는 親金系최고위원들과 은밀한 조직추진에 소외감과 분노를 느낀 反金系위원들간에 워커힐사건등이 폭발된것이다.

이內紛은 결국 해를넘겨 63년1월 정치활동이 허용된 가운데 진행된 창당준비과정에서도 끈질기게계속되었다.

사전조직등과 관련한 제1차反撥은 우선 얼마전까지 內閣首班을 지낸 宋堯讚씨가 1월7일 기자회견을 갖고 朴正熙의장의 下野를 요구하는 폭탄선언을한것。宋씨는『나는 朴의장을 아끼는뜻에서 몇번이고 공산당식으로 조직한 공화당에 업혀나가면 망신만당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金鍾泌씨를 공격했다.

제2彈은 최고위원을지내면서 화폐개혁을담당했던 柳原植씨。그역시 오늘의 失政과 혁명정부의 위신실추는 金씨때문이라고비난한것이다.

제3彈은 당시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겸 新黨발기위원이었던 金東河씨 (예비역해군중장)。

그렇지않아도 朴의장은 사전조직을둘러싼 내분의 수습책으로 反金系의 선봉장인 金東河씨와 金在春 吳定根 姜尚郁최고위원을 사전조직된 新黨(공화당)의 발기위원회에 참여시켰으나 계속된 소외감으로 모든 公職사퇴와함께 사전조직과 관련、金鍾泌씨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拍手부대나 되라는건가

金東河씨는▲최고위원들도 모르게 私黨같은것을 만들어놓고 우리더러 박수부대가 되라고하니 말이나되는가 ▲2元조직은 20만選良을 로보트로 만들려는것이다▲정치활동금지시기에 지방조직을 한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라며 金씨를 집중공격했다.

이에대해 당시 金鍾泌씨는『세상에서는 우리를 軍人黨이라고 오해하고있기때문에 이를불식,汎국민정당을 만들기위해 최고위원들을 발기인에 참여시키지않은것이며 나중 창당준비대회에 일제히 옷을벗고참여케하려 한것이다』고 못마땅해하면서 자신도 黨職을사퇴했다.

결국 암초에 걸린 新黨준비위는 金貞烈、金用雨 姜尚郁 吳定根씨등 4人小委의 黨기구조정案으로 兩金씨의 사표는 일단 반려되는 선에서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창당준비대회가 끝난뒤에도 4대의혹사건과 新黨의 사전조직자금 관련설로 金씨에 대한 퇴진요구가 다시 기승을부려 내분이 再燃될 기미를 보이자 朴의장은 2월18일 자신의 民政不參선언과 함께 時局收拾案을 제시, 政街를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이틀뒤인 2월20일 金씨는 黨員職을 포함한 일체의 黨職사퇴를 선언했고 26일 소위「自意半他意半」의 外遊길에 올랐다.

民主共和黨은 바로 그날 서울시민회관에서 創黨大會를 가졌다。朴의장도 金鍾泌씨도 모두 退場한 가운데—。

【特別取材班】

◇1년간의 事前조직끝에 浮上하여 63년1월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新黨(공화당)發起人會에 참석한 인사들。앞줄 (左로부터) 鄭求瑛 崔奎南 李元淳씨、뒷줄에 尹致暎 金龍泰 金貞烈 康誠元 成仁基 崔永斗 徐仁錫씨 李매리 여사등의 모습이 보인다.

「自意半·他意半」의 JP 첫外遊로 主役없는 創黨大會

新風土記

牙山孟씨 杏壇 <忠南 牙山>

李文熙 >作家<

黃喜·孟思誠·許稠 3정승이 國事논의

李忠武公을 평하여 현존하는 어느 일본인 소설가가

『군인으로서나 인격자로서나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奇蹟인…』

그런 인물이라고 썼다.

현충사가 牙山에 있다는 것쯤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아빠 엄마의 손목에 매달려 대롱거리며 境內에 들어선 꼬마들도 「이순신장군」의 影幀앞에 이르러서는 재잘거리던 입을 꼭 다물고 사뭇 심각한 표정이 되어 고개숙여 절을 한다.

溫陽-하면 예나 지금이나 온천휴양지의 대명사로 통한다. 나라의 상감님들도 이곳에 자주 들렀는데, 世祖같은 이는 여기서 「神井」을 발견하기도 했다. 아무리 퍼써도 온천물은 마르거나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않고, 인구 5만인 온양읍은 현재 市昇格의 懸案을 성취하기 위해 발돋움 하고도 있다.

현충사와 온천으로「끝내주는」牙山땅이기는 하나、이밖에도 이 고장이 자랑하는 名人·名所는 다른 고을에 못지 않다. 유명인 중의 한분으로 예컨대 金玉均선생의 묘소가 있다. 남의 나라에서 자객의 손에 쓰러졌고 시신으로 환국해서는 楊花津에서의慘刑도 치러야 했던 先覺의 풍운아가 지금은 이곳 靈仁面 牙山里에 잠들어 있다.

토정비결이라는 것이 너무도 유명해서 그런 비결을 지은 이가 실재했던 인물이냐 혹은 전설상의 인물이냐 하는 문학적 (?)인 질문을 나는 받은 적이 있지만 牙山사람 같으면 결코 이런 망발을 터뜨리진 않을 것이다. 土亭 李之菡선생이 이곳 현감으로「실재」하여 善政을 베풀었으며 또한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모두가 익히 알고 있으니 말이다. 土亭에게 牙山은 처가동네 격이었다.

선비가 학문을 닦는 장소를 杏壇이라고 한다. 청백리로 이름높은 孟思誠정승이 글 공부를 했던 행단이 아산군排芳面中里에 있다. 정식 명칭은 牙山孟氏杏壇 (사적 109호)。맹사성이 손수심었다고 하는 은행나무(높이35m、둘레10m)두그루가 수령6백년의 관록을 자랑하고 있고、內堂(ㄷ字형 맞배집、건평28평)이 남아있다. 대청마루를 사이에 하고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보는 자그마한 집인데 우리나라의 옛민가는 대부분이 이런 구조라고 한다. 워낙 오래되어 낡고 헐어서 정부재정으로 重修하고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外堂은 지금 빈 터뿐이다.

원래 내당 서편에 祠堂이 있고 동편에는 九槐亭, 일명 三相堂이 있었다고한다。黃喜、孟思誠、許稠 이렇게 세 정승이 그 정자에 모여앉아 나라일을 의논하기도 하였다는데 그정승들이 세그루씩 심은 아홉그루의 괴목중에서 현재는 단 한그루가 살아남아 있다.

온양읍에서 이동네까지는 7㎞, 비포장인데다 노폭도 좁아서 버스는 굼벵이보다도 느린 걸음이지만 덕택에 도중에 있는 溫陽鄕校와 溫州衙門등을 차안에서도 볼수 있었다. 관광객보다는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이길을 많이 이용하는모양이다.

中里는 排芳山을 안산으로 하는 북향마을이다. 옛날에 정승들이 들락거리던 마을임을 자랑하듯 동네 여기저기에 우람스런 노목들이 서있고 孟씨姓門패를 단 고옥들도 보인다. 孟정승의 故宅도 그중의 하나.

애초에는 高麗末의 崔瑩장군이 지은 집이라는데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孟정승의 조부가 이어받았다는 이야기이고보면 이만저만 유서깊은 杏壇이 아니다.

밖에서 보니 문간채는 그런대로 번듯한데 이는 작년에 重修한 덕택이라는 것이며, 담장이 따로 없어 사람이 살지 않는 허전한 모양의 古家가 통째로 들여다보인다. 아래마당쪽에 따로 집 한채가 있어 (지은지 20년 되었다고 한다) 孟정승의 22세손인 康烈씨 (35·고교 교사)의 가족이 살고 있다. 내가 방문했을 때 주인은 출근하여 만나볼 수 없었다. 부인의 얘기로는 당국에서 고택을수리하고 문화재로 지정 (59년1월)하면서 그때까지 그집에서 살고 있던 이 가족에게 다른 거처로 옮겨앉기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孟정승은 평생에 나라를 위할줄은 알았어도 자신이나 권속을 위할줄은 몰랐다고 한다. 지나치게청빈하고 치장이라는 것을 할줄 몰라서 그가 소를 타고 서울 왕래를 할때면 지방守令들이 야유를 했다는 것인데, 孟정승이 그 소를 얻게 된 것도, 牙山民話에 의하면 사람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仙童이 선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충사의 忠武公 李舜臣장군 영정。牙山郡에는 溫陽온천외에도 孟思誠대감이 공부했던 杏壇、金玉均의 묘소등 명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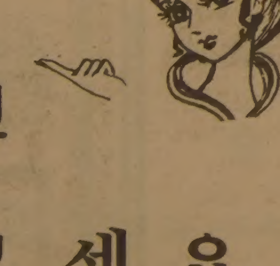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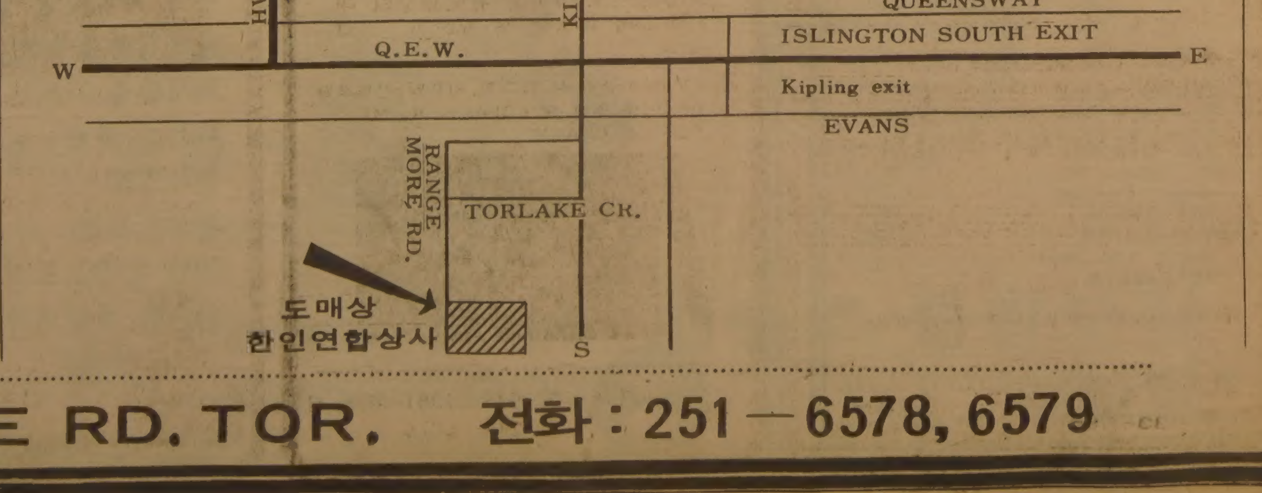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한 인 연 합 상 사

꼭

한 번

와 보 세 요





27 RANGEMORE RD. TOR. 전화 : 251 — 6578, 6579

바둑소식

林海峯9단 名局選集 출간

○…바둑관계서적의 전문출판사 玄玄閣에서 일본대표기사名局選 제5권「重厚 林海峰」(사진)을 내놓았다。

林海峰9단은 1942년 中國上海生으로 10세때 臺灣에서 吳淸源9단의 인정을 받아 渡日、本因坊·王座·十段·名人位를 휩쓸었던인물。최근 몇년간은 슬럼프에빠져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재기、지금은 일본최대타이틀인 棋聖戰의 도전자가되어 후지자와 슈꼬棋聖과 7번기를 두고있다。

「重厚林海峰」에 수록된 기보는 모두 25국으로 林9단의 名局만을 골라 실었다。【값2천8백원】

○…제7기 國棋戰본선리그는 출전9국가운데 19국이끝난10일 현재 曺薰鉉8단이 5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있으며、金寅8단이 4승1패로 2위를 바짝 좇고있다。따라서 도전권은 曺8단대 金寅8단과의 한판승부로 결정되는데 曺8단이 이기면 그대로 도전자가돼나 金8단이 이기면 재대국으로 도전자를 가리게된다。

한편 시드조잔류기사는 徐能旭6단、鄭壽鉉4단등 4명이며 尹奇鉉8단、河燦錫7단、金秀英5단은 남은 대국에 관계없이 시드탈락이 확정됐다。

曺薰鉉8단、霸王戰도 방어

○…曺薰鉉霸王이 또다시 타이틀을 방어했다。

曺薰鉉霸王은 지난12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7기 霸王戰도전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姜勳4단을 2백36수만에 黑4호半勝을 거두어 토틀스코어 3대1로 타이틀을 지켰다。

이로써 曺霸王은 지난13기 이래 5기연속 霸王位를 보유하게됐는데 이날 대국의 소비시간은 제한시간 각5시간 가운데 曺霸王이 2시간20분、姜4단이 4시간35분이었다。

그런데 姜4단은 지난16기에서도 도전자로선발해 曺霸王과 겨루었으나 3대0 스트레이트로 패배했었다。

柔道선수단 壯途에 쿠웨이트대회 參加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82년도 쿠웨이트국제친선유도대회에 출전할 韓國선수단 9명(임원2·선수7)이 17일 하오 말레이지아항공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이번대회는 주최국 쿠웨이트가 항공료및 체재비일체를 부담하는데 韓國은 주니어대표급선수들을 파견했다。

◇韓國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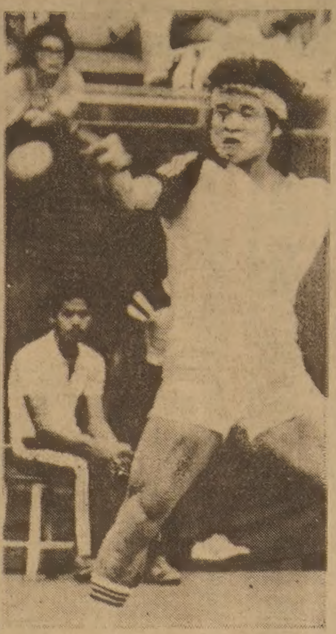
▲단장=金鍾達(유도회경기이사)▲코치=朴淳喆(柔道大강사)▲선수=朴永寬(圓光高)尹容勃(柔道大)李重濬(京畿大)陳成雲(柔道大)申琦澈(京畿大)白長基(飛鳳高)朴喜勝(慶熙大)

한국、홈팀 말聯 완파

亞洲 네이션컵테니스

단식 全瑛大·金春浩、셀바라주·루디후 擊破
복식 田昌大·全瑛大、라만람달·루디후 꺾어

내일 日本과 準決서 격돌



◇全瑛大·金春浩분전 全瑛大㊧와 金春浩의 분전하는모습。

한국남자 테니스대표팀은 17일 쿠알라룸푸르의 리가라코트에서 속개된 아시아네이션컵 쟁탈 테니스대회 준준결승전에서 주최국 말레이지아를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은 19일하오 5시(현지시간) 日本과 결승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데이비스컵대표선수들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은 1차단식에서 全瑛大가 셀바라주를 6－3、6－1로、2차단식에서 金春浩가 루디후를 6－7、6－2、6－2로 각각 격파、리드를잡은후 복식에서 全瑛大·田昌大조가 라만람달·루디후조를 6－7、6－4、6－1로물리쳐토틀 3－0의 완승을 거두었다。

한편 강호 印度역시 준결승전에 진출、中共－싱가폴戰 승자와 대결케 되었다。

◇준준결승전

한국 3－0 말레이지아

全瑛大 2(6－3 6－1)0 셀바라주

金春浩 2(6－7 6－2 6－2)1 루디후

全瑛大·田昌大 2(6－7 6－4 6－1)1 라만람달·루디후

스위스등 유도選手 轉訓위해 한국에

최근까지 대한유도회에 각국의 유도선수단들이 전지훈련차 韓國으로 몰려 든다。

國內전지훈련을 요청한 나라는 日本·쿠웨이트·스위스등 3개국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도 희망하고 있다。

오는 24일 내한할 日本최강 東海大附高팀은 서울·大邱등지에서 5일간 친선경기및 전지훈련을 쌓게되며 쿠웨이트 주니어팀은 26일부터 보름간 서울에 머물며 韓國유도를 배울계획。

또 4월중순에는 스위스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韓國을 찾게되는데 유도회는 5월이전까지 中東지역에서 2·3개팀이 더 다녀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宗教영화「死後世界」 東南亞3국·유럽3국 輸出

◇동남아로 수출이 결정된 「사후세계」의 한장면

동남아권을 벗어나지못했던 한국영화의 유럽진출이 크게늘어 邦畵수출에 밝은 빛을주고있다。종교색채영화「만다라」가 서독에 수출(2만달러)된데 이어 인간의 來世를 종교적으로 조명한「死後世界」(감독 張一湖)가 동남아3국과 유럽3국에 수출된다。또 베니스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피막」도 벨기에(2만달러)에 수출단계에 있다。

「死後世界」는 말레이지아·홍콩·필리핀에 각각 2만달러로 수출키로 결정했다。또 호주、프랑스、독일등 3개국이 수입을 제의、가격을 절충중인데 1개사당 2만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사후세계」는 12만달러를 벌어들일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가 유럽시장에서 각광을 받는것은 그동안의 해외영화제참가가 큰 도움이 된것으로、영화계는 풀이하고 있다。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㊸

休戰調印과 나의立場

포로自由送還위해 열띤舌戰

휴전회담의 세가지중요 포인트는 휴전선、휴전감시、포로교환이었다。

휴전선은 당연히 현전선이어야하는데도 공산군은 38선을 주장했다。현전선으로 합의된 다음에는 서로 어느 지점이 전선이냐는 다툼이 생겼다。

심지어 어느 고지를 두고 회담장에서 서로 우리것이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있었다。당시 유엔측연락장교인 미해병대의 머리대령은 그 고지는 해병대가 점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전선에 나가봐도 없다고 못박기도했다。

유엔군측 대표에는 미군의 케니대령과 머리대령 한국군의 李壽榮대령등이 연락장교를 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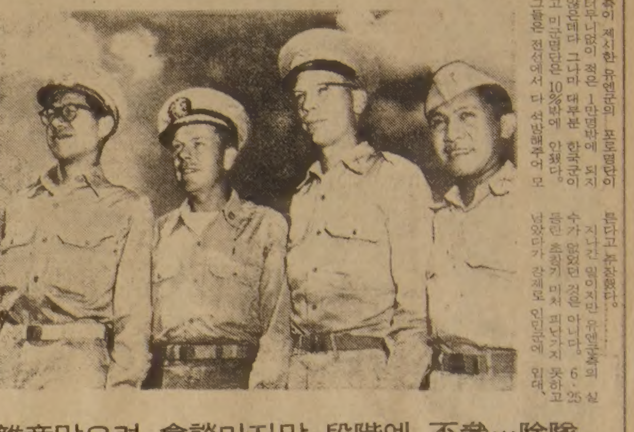
휴전감시에 대해 공산측은 근본적으로 외부감독을 싫어해 애를 먹었다。중립국감시국으로 유엔군측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를 제외한데 반해 공산군측은 소련 폴란드 체코를 추천했다。

그래놓고 공산측은 어느 국가는 안된다고 떼를 써 유엔측도 소련은 안된다고 맞섰다。결국 소련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양측에서 추천한 2개국가씩 4개국가가 감시국으로 결정되었다。

가장 힘들고 시간을 많이끈 문제는 포로교환이었다。자유송환을 하지않고 무조건 송환을 하자는데 문제가 있었다。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독일에 잡혔던 상당수의 소련군이 송환을 싫어했고 억지로 보낸결과 많은사람이 자살했다함은 잘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포로교환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났던것은 공산측이 제시한 유엔군의 포로명단이 터무니없이 적은 1만명밖에 되지않은데다 그나마 대부분 한국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미군명단은 10%밖에 안됐다。그들은 전선에서 다 석방해주어 모른다고 주장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유엔군측의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6·25 당시 초창기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남았다가 강제로 인민군에 입대、[illegible]



◇한국전휴전협정이 조인되던 그해여름에 찍은 기념사진。㊧로부터 李壽榮대령、필자、동생 元得漢、중국인통역관。

뒷날 雜音막으려 會談마지막 段階엔 不參…除隊

한국군에 포로가된 한국인은 포로수용소에 보내지 말았어야했다。이들까지 합쳐 15만명의 포로 명단을 솔직하게 회담장에서 털어놓아 버렸다。

회담대표들이 실제로 巨濟島포로수용소에가서 자유의사를 심사한결과 반이상이 이북으로 가지 않겠다고했고 중공군 가운데도 상당수가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조인되기전인 그해 4월 리지웨이장군의 제안에따라 부상포로를 먼저 교환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를「little switch」라고 불렀다。이를 계기로 자유교환이 진전됐고 인도군이 와서 포로를면접、남과북가운데 어느곳을 택할것인가를 물었다。

휴전회담은 가장 오래 끌때는 8시간 이상걸렸지만 어느때는 단 15초로 끝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했다。『새로운것없읍니다。』『폐회합시다』가 발언전부였다。그두마디말은 단2초면 끝낼수있지만 3개국어로 통역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나할까。

李承晩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했을때는 합의를 다 끝내고 조인만 남기고 있을때였다。

나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계속 남아야할 입장이어서 한국정부가 그렇게도 반대하는 휴전협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참여하고싶지않았다。유엔군대표들도 이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해 7월4일 미국독립기념식에 참석한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도착、제대수속을 밟았다。나의 군복무는 두번에 걸쳐 6년이 넘은 셈이다。

주간女性

副會長 金濼씨선임 體育會

吉相鎬대한체육회장은 사임한 全畢淑부회장후임으로 金濼KOC부위원장(국회의원)을 17일 선임했다。

金부위원장은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차장직을 맡게되어 체육회부회장을 사임했었으며 지난16일 열린 체육회전기총회에서 후임부회장선임을 회장에게 일임했었다。

◇金濼부회장

流星의 賦 〈31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⑨

일본 침략의 본제는 어떻게 되었건 수길의 답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병을 거느리고 대명(大明)으로 쳐들어 갈 것이다』

하는 대목이다。

유성룡의 징비록엔

『나는、곧 사유(事由)를써서 명나라의 조정에 주문(奏聞)케하라고 했으나 영의정 이산해는、명나라의 조정이 우리와 왜국이 사사로이 통교(通交)한것을 알면 노여워할 것이라며、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겨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기왕의 사실을 들어 명나라에 주문하자고 하니 많은 사람이 동조하므로、결국 김응남(金應南)등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보고했다』

고 가볍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처음 명나라에 주문사를보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대사헌 윤두수였고 이에 동조한 사람은 병조판서 황정욱이었다。윤두수는

『군신과 부자지간엔 무슨 일인들 통해서 안될 일이 있겠읍니까。필수직진(必須直陳)하면 후에 책임이 없을것입니다。그밖엔 계책할것이 없읍니다』

하고 기휘(忌諱)까지 인용하며 당당히 주장했는데 영상 이산해가 반대했고 유성룡도 처음엔 영상의 의견이 옳다고했다。

그런데 주문(奏聞)과 비주문(非奏聞)간의 논쟁은 또한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이기도했다。즉 주문하지말라는 파는 이산해、김수등 동인들이고 주문하자는 파는 윤두수 황정욱등 서인이었다。이러한 대립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좌승지 유근(柳根)수찬 박동현(朴東賢)등의 의견을 들어 유성룡은 비주문 파에서 주문파로 돌았다。

그런데도 8월에 요동도사(遼東都事)가 우리 조정에 다음과 같이 일본정세에 관해 문의하여 왔다。

(一)、유구왕(琉球王)정동이 1、수길이 유구에 봉삭헌지(奉朔獻地)를 요구하였고、2、명(明)과의 구호를 위해 동에게 금품을 보내 매수하려 하였고、3、조선을 정복하고、일본 섬주에 조선(造船)을 명했으며、4、금년 3월에 대명(大明)을 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보고해 왔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히라는 것이였고、

(二)、복건 동안현(福建同安縣)의 선상(船商)진신(陳申)이란 자가、1、유구에서 왜선(倭船)으로부터 변보(變報)를 얻어 유구왕 동에게 보고하고、2、금년 9월 명나라를 칠 계획을하고 있으며、3、12월에 수길이 유구왕에게 진공(進貢)을 요구했고、4、수길이 명나라를 쳐들어올땐 북경방면(北京方面)은 조선으로하여금 향도역을 맡게하고、복건과 절강(浙江)방면은 중국인으로 하여금 향도케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조정에선 앞서 보낸 김응남에 이어 다음과 같이 진주사(陳奏使)를 보낸 것은 10월24일의 일이다。

진주사 한응인、서장관 신경진(辛慶晋)、질정관(質正官) 오억령(吳億令)。

명나라 조정에선 각지에서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유독 조선에서만은 아무 말이 없어 궁금하게 여기던차 김응남이 표문을 갖고 들어가고 이어 진주사가 오고했기 때문에 적이 반가와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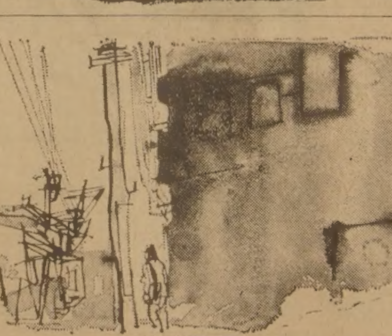
연중무휴이다시피한「영광학원」의 신정연휴는 강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각별히 감지덕지한 것이었다。

입시(入試)날이 며칠 안남아 마지막 채찍질에 열을 올려야할 때、피할수없는 휴일이 끼어있다는 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잠깐 조는것처럼 아슬아슬하고도 감미로왔다。

강사들은 제각기 사흘동안에 다 이룰수없는 호사스러운 휴가계획을 공표하고 흩어졌지만 아마 낮잠이나 실컷 자고싶다는 소망이 가장 실현가능성있는 계획이라는 걸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7층건물속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서울장안에서 가장 고단한 사람들이었다。목이는 생전 처음 가져보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할지 난감했다。

[illegible]



갑자기 텅빈 7층 빌딩은 가벼운 한숨소리도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것처럼 적막하고 공허해졌다。

『너는 누구냐?』

[illegible]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illegible]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목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illegible]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일 [illegible]

연휴 이틀째 되는 날、목이는 원장아버지를 찾아보기위해 영광학원을 벗어났다。

『일찍 돌아오도록 해、미스 오。별 볼일 없이 시내 싸돌아다녀봤자 지갑만 허룩해지지、이득 될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 지긋한 수위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에도 목이 듣기엔 네 따위 고아가 외출해봤자 돈 쓸 일 밖에 갈데나 있겠느냐는 비양거림으로밖에 안들렸다。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7층건물이지만 뒷문밖은 생전 볕이 안드는 음험하고 더러운 뒷골목이었다。뒷골목의 구옥들은 거의가 다 싸구려 음식점이어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위에 끼얹은 밥찌꺼기가 얼어서 모말꽃처럼피어나고 있었다。목이는 뒷골목에 볕을 차단하고 떡버티고선 7층의 괴물스러운 등어리를 쳐다보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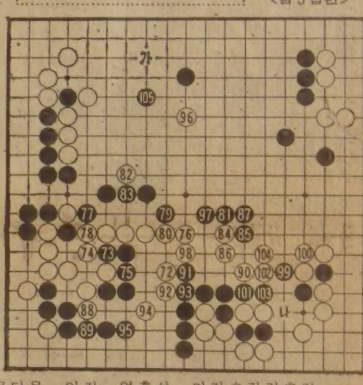
라고 진저리쳤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5譜 72～105 (각5시간 걸림)

白(7段)河燦錫〈1勝1敗〉

黑(6段)姜哲民〈0勝4敗〉



黑、大勢를 挽回

좌변白대마를 90로 탈출시킬때까지 7단은 줄곧 시달려야했다。당초白72가 공연한 수였다。이런곳은 지점76자리에 뛰어야 편했을터인데、당장黑73이하의 공격을 받게되었고 계속되는 白76이 또 의문。白은 79자리지만 76은 79자리로 터져나올곳을 찾아야 되었던 것이다。

이바람에 黑77과 79가 선수。계속해서 黑81이하 87의 준엄한 추격으로 상측 白대가 온통 黑의 세력권에 들게되었다。

白90은 어쩔수가 없다。이수로 白93자리를 끊었자 黑90로 탈출하면 白이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黑이 대세를 만회하자 白은 뭔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될판이다。정직하게 두자면 白90까지 된 모양에서 즉시 104등에 가일수해야 된다。그러나 여기서 후수를 잡으면 黑이 상변을「가」정도로 확보해도 白은 도저히 이길가망이 없다。

이래서 白96으로 적진깊숙이 들어간것은 일단 수긍이간다。

姜6단은 그러나 白96을 외면하고 黑97、99를 비롯하여 101、103까지 선수하더니 白104때『바둑이…』하면서 곳간을 내몰렸다。

이번만은 기분이 사뭇 좋다는 눈치。언제든지 黑이「나」로 白두점을 때내는 선수가 남아있으니 白은 대마를 살리려다 이부분에서 철저히 당한 꼴이다。

게다가 선수는 黑이 잡고있다。姜6단은 이제 白96을 어떻게 다스릴것인가、골똘히 생각한다。직접 한점을 가둬잡는 수는 없을까。

그러나 결국 黑105。모자는 日字로뗀는 行馬法을 취했는데 과연 어떨는지。【一凡】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캐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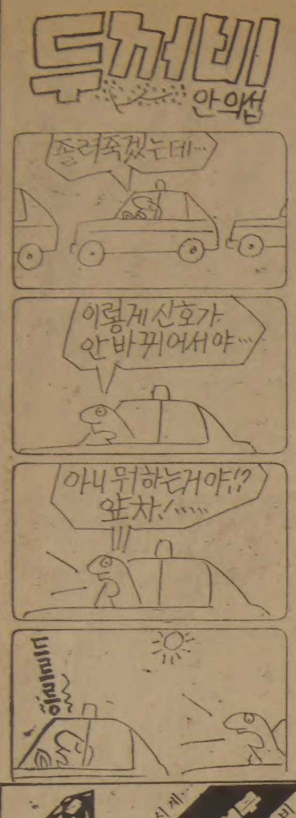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몬트리얼 지국장 입니다.

기사 · 광고 · 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정 관 성
(514)672－8399(R)
(514)845－7151 EXT.343(B)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登場하기전에 料金인상

不在中안내등 선전한「電子전화」

遞信部 1년 無料서비스 約束도어겨

전자교환기 가입전화에 대한 특수서비스요금이 서비스가 실시되기도전에 33.3%나 대폭 인상됐다.

또 1년동안 무료서비스하려던 당초방침도 바뀌어 실시와 동시에 인상된 요금을 내게됐다.

더군다나 체신부는 특수서비스 신청기준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신부는 지난80년4월부터 전자교환기의 보급이 확대됨에따라 전자교환기 국내 가입수용자중 희망자에 한해 특수서비스를 해주기로결정, 81년6월1일 각종 체신요금 인상과함께 전자교환기 전화특수서비스 사용료를 각 종류별로 매월 2천2백50원으로 책정(1도수료×150도), 체신부고시제63호로 관보(81년6월2일자)에만 고시했었다.

체신부는 또 이같은 서비스를 81년11월부터 실시하기로했었으나 전자교환기의 부수적인 기능과 특수서비스실시에 따른 내규를 제때에마련하지못해 전화 특수서비스업무는 실험에만 그치고 일반 가입자들에대한 공람은 금년 4월부터 실시키로미루었다.

그러나 체신부는 전화특수서비스를 일반에게 실시하기도전인 지난해12월9일 제2차 체신요금인상에따라 특수서비스의요금도 종류당 3천원으로 33.3%나올린뒤 이는 관보에조차 공고하지 않았다.

한편 체신부는 지난해 이같은 특수서비스제도를 발표하면서 가입을 권장하고 가입자가 전화기를 전자교환기용인 MFC(푸시버튼 전화기)로 바꿀수있는 시간의여유를 주기위해 1년동안 무료로 서비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방침도 변경, 올해부터는 특수서비스를 실시할때부터 종류별로인상된 사용료를 받겠다는것.

이에대해 한 고위당무자는 도수료가 15원에서 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특수서비스요금도 인상할수밖에없다고 밝히고있지만 전자교환기 가입자들은『당국이 새로운 서비스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조차 알아보지않고 요금부터 올려받겠다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말하고 통신사업경영면에서 보더라도 결함이 많은것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화특수서비스를 할수있는 8가지중 올해는 우선▲단축다이얼▲부재중안내▲착신통화전환▲통화중대기등 4종류만 실시하고 전자교환기가입 65만대(81년말현재)중 13만3천3백80건에대해서우선 서비스를 하기로했다.

一般大 교직課程 履修者
B學點 이상자만 資格證

교원資格기준 强化 文教部

문교부는 17일 초·중등교원의 자격기준을 강화, 현행 4년제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자라하더라도 대학 4년동안의 전학과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자격증(2급정교사)을 수여하지 않기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결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4년제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사범대나 교육대졸업자와 마찬가지로 2급정교사자격증을 주는 현행제도가 교원의 자질저하를 초래하고있을뿐만 아니라 교원정예화를 지향하는 문교시책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있는 4년제 일반대학은 모두80개 대학으로 해마다 1만여명이 졸업때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다.

電子업계 僑胞간첩 李憲治에 死刑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는 17일 재일교포 전자기술자위장 간첩사건 선고공판에서 전三星전자 음향사업부직원 李憲治피고인(29·일본명 山本憲治·경기도水原市 芭長洞212의5 三益아파트1동206호)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등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억울한 大入낙방

延大응시2百35點 全北교위 願書作成미스

대입학력고사에서 2백35점을 따낸 金淑田양(19·검정고시출신·서울冠岳區新林9洞250)이 서울 延世大신과대학 사회사업학과에 응시했으나 전북도교육위원회에서 입시원서 뒷면에 기록하게 돼있는 학력고사성적과 내신성적(2등급)을 기재하지않아 억울하게 불합격처리됐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金양의 원서는 접수마감전날인 지난1월12일 전북도교위 민원실의 崔모주사(35)가 작성했는데 다른대학 입시원서와는달리 延世大원서가 뒷면에 학력고사성적을 기재하게돼있어 崔씨잘못으로 앞면만 기재하고 그대로밀봉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같은 결과를 빚은것이다.

延世大 사회사업학과는 학력고사성적이 최하 1백95점에서 2백55점까지의 수험생들이 합격됐는데 金양은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학생이 합격되고 자신이 불합격된것을 이상하게 여겨延世大측에 문의한결과 이같은 사실을확인한것.

金양은 延世大에 불합격되자 외가가있는 光州에서 우석大에 응시, 합격했다.

사이카巡察隊 高速道에 첫登場

고속도로에 첫순찰사이카대(隊)가 등장했다.

치안본부는 17일 고성능사이카 5대로 고속도로순찰사이카대를 발족, 경인, 경부, 영동 고속도로에 배치했는데 오는3월에는 5대를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個性살리고 실용적이라야"

"내게맞는 머리型과 옷차림은…" 校庭서 열띤「攻防」

◇「분수에맞게 아름답게」란 주제로열린 梨花여고의「두발·복장 자율화실시에 따른 토론회」광경. 柳寬順 기념관을 가득메운2천4백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문가의발표에 귀를기울이고있다.

"青少年다운 美와 분수를
限界는 자신·父母 만족…社會의 허용"

梨花여고 討論場

두발·복장 자율화와 내년 신학기의 복장 자율화를 앞두고「내게 어울리는 머리型과 옷차림은 어떤것일까」새봄과 함께 맞이할 고민하는 남녀중고교생들에게「분수에 맞고 아름다운」머리型과 옷차림을 찾아주려는 각계의 모임이 활발하다. 17일 梨花여고 柳寬順기념관에서도 그런노력의 하나로 전교생2천4백명과 교직원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5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수에 맞게 아름답게」란 주제로열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모임은「자신과 부모가 만족하고 사회가허용하는 한계」에 대해 많은의견들이 제시됐으나 결국『개성을 살리면서 실용적인머리型과 옷차림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집약됐다.

이날 토론회에앞서 鄭喜卿교장은 인사말을 통해『두발·복장자율화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나갈수있는가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라고 토론회의 성격을 설명했고 토론회의 형식도 학생대표와 학부모대표1명씩 나와 의견을 제시한후 미용전문가와 의상전문가가『바람직한 선택방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대표로나온 崔延瑗양(17·2년愛반)은『대부분 학생들이 자율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못하고있는 실정이며 또 막상 어떤머리모양이 자신에게 어울리고어떤옷차림을 해야 좋은가에대해 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

또 학부모대표 鄭英愛씨(1년德반 李政姸양 어머니)는『교복이 없어진다는데에대해 일말의 아쉬움이있지만 자율화는「발전」을 의미한다는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그러나 경쟁심리가 강한 여고생들 사이에 자칫 사치풍조가 생겨나거나 빈부차이에 따른 위화감조성등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교육적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鄭씨는 또『무엇보다도 학생들 자신이 자율에 따른 건전한 책임의식과 신분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고말한후『그러나 그보다 더중요한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며 가정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발형을다룬 미용전문가 그레이스 李씨(51·여)는『자율화에 따라 학생들이 지나친 해방감에 멋만을 생각하게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여고생들은 아직 청순한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며 이 아름다움을 청결하고 개성적으로 가꾸는것이 가장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씨는 여고생들에 어울리는 7가지의 기본머리형을제시하며『자신의 용모와 개성을 먼저 정확히 알고난후 어울리는 머리형을 선택해야한다』고 충고했다.

李씨는『머리모양이 자율화됐다고해서 길거리나 잡지등에서 아름답다고 느낀머리型을 그대로 모방하는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자신에게 맞는 머리모양을 스스로 연구하고 어머니등 주변의 조언을 들어 선택하되 항상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옷차림에 대한 조언을 맡은 誠信여사대 金貞子교수(여·의상학과)도『학생신분에 걸맞는 옷차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점을 먼저 강조했다.

金교수는 여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교외생활에 함께 멋있고 편리한 옷을 선택하는데있어 ▲자신의 신체적특성을 고려한 간단한 디자인 ▲활동하기 편리하고 튼튼한 기능적인 형태 ▲신분과 개성에 맞되 유행을 고려한 디자인등을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金교수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여고생들이 부모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선택할수있는 옷들이 많이있다고 말하고 우선 스커트와 진종류의 하의와 블라우스, 스웨터등의 상의를 2가지 색깔로 배합해 입는것으로 시작, 서서히 검소하고 멋있게옷차림을 할수있는 지혜를 배워나가라고 제시했다.

金교수는 대학신입생의 경우에도 섣불리 정장을 하거나 레이스가 많이달린 화려한 블라우스 또는 값비싼 실크블라우스차림을 해 오히려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실크블라우스는 밤에만 입는 옷이며 주간에는 특별한 경우가아니면입어서는 안되는 옷』이라고말했다.

金교수는 이어『옷을 잘입는것을 생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라는 신분에맞는 몸가짐을 가지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임이 끝난뒤 학부모金珉慶씨(46)는『매우 유익했다. 교복을 벗는순간부터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어머니들의 재교육이라는 의미에서도 이같은 기회가 많아져 자율화의 부작용을 피할수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保險金 5천만원에 눈먼 50代女人

中毒死위장…不具딸 殺害

共謀 內緣의 남편·保險社지점장등 拘束

【釜山=聯】비정의 어머니가 보험금5천만원을 빼내기위해 내연의 남편, 보험회사 지점장등과 짜고 불구인 딸을 연탄가스로 살해했다.

釜山남부경찰서는 17일 權福德여인(50·釜山市南區龍湖2洞534의16)과 내연의 남편 金敬太(54·南區龍湖2洞545)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釜榮(中區中央洞소재)지점장 朴炳友씨(50·南區廣安1洞110)등 3명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여인은 3살때부터 소아마비와 정박아인 딸 姜得蓮양(29)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먹기위해 金씨와 짜고 지난81년10월23일 범한해상화재보험에 가입, 1년분 12만6천원을 불입한뒤 지난달18일 밤11시께 姜양이 잠자고 있는 자기집 안방에 연탄불이 있는 화덕을 들여놓아 姜양을 가스에 중독, 숨지게했다는 것이다.

權여인은 딸과 함께 잠자다 방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꾸미기위해 다음날 새벽5시께 부엌에서 들어와 딸이 숨진것을 확인하고 연탄화덕을 밖으로 옮긴뒤 잠자리에 돌아왔는데 金씨는 모녀가 연탄가스에 중독된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서 허위진술했다.

權여인은 이웃에사는 金씨와 18년전 남편과 사별한뒤 2년동안 내연의관계를 맺어왔으며 지점장朴씨는 權씨의 부탁을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1천만원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姜양을 정상인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토록하여 보험에 가입해주었다.

이들은 姜양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면 權여인과 金씨는 각각2천만원, 지점장朴씨는 1천만원을 나눠갖기로 사전모의까지 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姜양의 사인을 조사하다 한방에서 잠잔 權여인은 아무이상이 없는데 의심을 품고 재수사를벌여오다 최근 姜양명의로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키위해 소송사건에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연행, 추궁끝에 밝혀졌다.

◇"殺人母情…이럴수가"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소아마비인딸을 연탄가스로 살해한 비정의 어머니 權福德여인(中)과 내연의남편 金敬太씨(左)및 공모한 보험회사 지점장 朴炳友씨(右).

"愛煙家는 사절합니다"

새마을 客車1輛 禁煙칸으로 내달부터 運行키로

철도청은 오는3월1일부터 새마을열차에 한해 객차 1량을 금연칸으로 지정, 운행키로 했다.

금연칸은 담배를 피우지않는사람과 부녀자들을 보호하기위한것으로 승차권을 판매할때 승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해주는데 새마을 객차는 현재 객차마다 좌석의 30%에 해당하는 16석을 금연석으로 지정, 운행하고있는데 흡연자가 한칸에 섞여있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새마을열차는 전국적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전라선등에 하루 22개열차가 운행되고있다.

상습誣告 30代 令狀

金品뜯다

서울시경은 17일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하거나 고소를한뒤 금품을 뜯어온 서울금만상사소속 택시운전사 朴鍊植씨(35·道峰구도봉동49의1)를 무고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朴씨는 지난해 11월30일과 지난달22일 금만상사 전무 徐정호씨가 운전사 퇴직금 1백5만원을 타내 이중1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로챘다고 서울지검과 시경등에 거짓 진정한것을 비롯, 지난80년부터 지금까지 회사간부와 교통순경등 15명을 상대로 17차례에걸쳐 허위고소 또는 진정을 한 혐의이다.

할부컬러TV40臺팔고도주

主婦3명등 拘束

서울지검특수1부 朴桂宣검사는 17일 컬러TV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입한후 장물아비에게 팔아넘기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컬러TV 40대를 편취해온 주부사기단 朴正女(43·서울東大門區忘憂2洞509의61) 朴二禮씨(36·東大門區忘憂洞山11의17)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컬러TV를 사들여온 세운상가 金星대리점주인 趙亨鎭씨(44·서울中區新堂洞372의482)등 3명도 장물취득혐의등으로 구속했다.

새학기부터 5일制 授業

서울 應岩·新月·孔陵·文昌
釜山 蓬萊·廣安·周禮 국교

서울시교위는 17일 문교부의 과밀학급 해소책에 따른 국민학교 5일제수업 실험학교로 서울의 應岩·新月·孔陵·文昌국교등 5개교를 지정, 새학기부터 시범운영키로했다.

한편 釜山市교위도 蓬萊·廣安·周禮국교등 3개 국민학교를 시험학교로 선정, 오는3월1일 신학기부터 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했다.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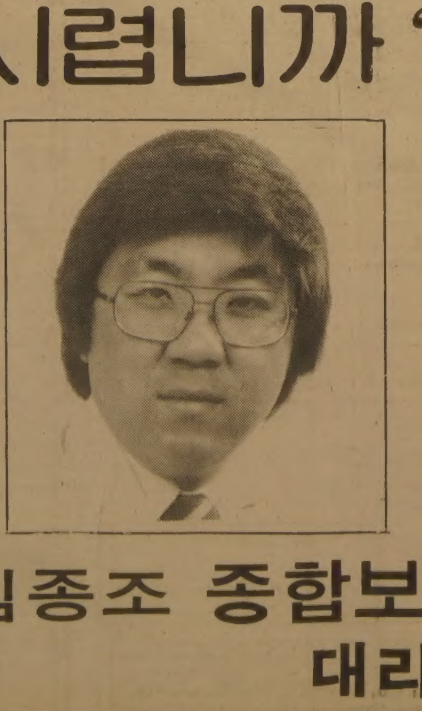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파트 타임 헬퍼구함.
서쪽지역. ☎769- 5956

가게 매니저 구함.
☎449-1871 Mr. 권

가게 캐쉬어 또는 헬퍼 구함
☎ : 651-3365

"경험있는 스토아 캐쉬어 구함 : 금, 토, 일 오후 4시~11시까지, 로렌스×더프린지역)
☎ : 239-7267 MRS. 신

레스토랑 남자 헬퍼구함
☎ : 486-1112
프랑소와 OR MR. 정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접시 닦을 분과 주방일 도우실 분
한 국 관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AVE.
☎ : 656-3020

매주 일요일 FULL TIME 가게 헬퍼구함
킹스톤×빅토리아 파크
☎ : 699-9909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있는 캐쉬어구함
제랄드×콕스웰
☎ : 465-6885 미스타 유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구 직

아기 정성껏 보아 드립니다.
346 WESTON RD. (ST. CLAIR)
☎ : 763-3289 장 영 동

입주해서 아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50세,
☎ : 438-7198

매매및 양도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 425-0635

WHITBY북쪽지역의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1-655-3831, 또는 서신연락처
P. O. BOX 101 BROOKLIN ONT. LOB 1CO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이윤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4,000 관심있는분 직접 내방바람.
250 Sheppard Ave. W.

한글타자기 구합니다.
☎ : 364-2385 MR. 김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가정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크리스티 × St.Clair)
☎ : 656-5358

A. E. LEPAGE LTD.
☎ : 741-9170 미세스 우

①카페테리아(테이크 아웃 비지네스)
주5일간 오픈, 주매상 : $6,000
가격 : $230,000, 리스 : 12년

②SMOKE & GIFT SHOP.(전망좋고 시간짧은 사무실 빌딩 안)
주5일간 오픈, 가격 $75,000
리스 : 6년+5년
여자 혼자서도 운영 가능

③SUBWAY통로에 위치한 COFFEE, NUTS, CANDY SHOP
가격 : $42,000, 월매상 : $7,000~$9,000
리스 : 3년+5년+5년

④그로서리 스토아(SHOPPING CENTRE내)
년매상 : $840,000, 가격 : $330,000
리스 : 1990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 $40,000
☎ : 1-579-4507

3베드룸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밀크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리스 3년반+옵션5년,
2517 Eglinton Ave. W.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스토아 급매합니다
아스킹 $79,000+스탁
☎ : 633-7222 다운스뷰 에어리아

아파트 안에(500여호)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 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1-519-453-0420

기막힌 투자전망 좋은리스
햄버거 샵과 도너츠 샵(오샤와지역)
☎ : (1)~668-5868(B), (1)~668-2484(R)
Mr. Charles B. Rycraft
D. W. Mcquay Realter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DUPONT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0-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태 권 도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K A L : 862-825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 533~2361

2ND CLASS MAIL NO. 5248